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어떤 권세보다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을 늘 주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늘 주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

경제 불황, 사랑과 나눔으로 극복해나가야...

TGC, 목회자들을 위한 경제 불황 정의와 영향알기 쉽게 설명

코로나 19 팬데믹이 초래한 경기 침체는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길었지만 가장 짧은 경기 침체였다. 최근 대유행 기간 경제위축이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단 두 달 동안 지속됐다고 결론 내린 미국 경제 연구소의 분석이다. 지난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1.4퍼센트 감소했지만, 다음 분기에는 33.4퍼센트 증가하며 회복되었다.

하지만 불황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일반인들에게 "불황"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경제가 "나쁜 상황"일 때라고 말할 것이다.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그들이 가진 의견은 대체로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 매체의 독자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경기 침체는 실질 GDP의 2분기 연속 하락이란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릴 것이다.

이 정의들은 그 어느 것도 정확하지는 않다. 미국에서 비즈

니스 회전 주기를 분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검증된 곳은 독립적이고 비영리적 연구 기관인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미국 경제 연구소)의 '경기 순환 측정위원회'이다. NBER는 경기 침체를 경제 전반에 걸쳐 확산하는 경제 활동의 현저한 감소가 있는 기간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경제(일명 GDP)는 경제 확장으로 알려진 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기간과 불황으로 알려진 경제 활동이 감소하는 기간을 반복한다. 이를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며 확장, 정점, 감소 및 바닥의 네 단계를 포함한다. 확장은 바닥과 정점 사이의 기간이고, 쇠퇴는 정점과 바닥 사이의 기간이다(Economics for Church Leaders: Understanding Recessions).

이 정의들은 그 어느 것도 정확하지는 않다. 미국에서 비즈



목사장로기도회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주관 제46회 목사장로기도회 성황 전심으로 기도하자... 미래의 희망은 잃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총회(총회장 홍귀표목사) 교육부 주관 제46회 2022 목사장로기도회가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콜로라도 사랑의교회(담임 홍성우 목사)에서 '미래 교회의 핵심 역량(力量)'(사 52:10)이란 주제 아래 개최돼 예배와 세미나, 기도회로 진행됐다.

26일 6시 30분 이동훈 목사(북미 마운틴/교육부)의 사회와 신현수 목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안병권 목사(남가주/총회서기) 기도, 장의한 목사(뉴잉/총회회의록서기) 성경봉독, 설교 김성국 목사(뉴욕/부총회장)가 맡았다. 김성국 목사는 '미래와 기도'(예레미야 29:11-14)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받으실 영광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다"라며 말씀을 이어갔다. "본문은

포로의 삶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이다. 이처럼 우리 교단에 평안을 줄 것이고 미래 희망이 있음을 들려주고 있다. 우리 교단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님은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전심의 기도를 드리자. 이 기도가 없으면 주를 만날 수가 없다. 이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자. 미래의 희망은 잃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선배들의 열정으로, 종교개혁의 자리로 예전의 진정한 창조와 비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권했다.

이날 예배는 한일철 목사(동남/교육부장)의 인사말 후 오세훈 목사(로스앤젤레스/전 총회장)의 축도로 개회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다. (10면으로 계속)

불경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경제 쇠퇴기에는 흔히 여러 종류의 악영향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사업에 대한 투자가 둔화할 때,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한다. 기업가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소규모 사업체들 역시 감소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소비자들의 상품과 서비스(자동차와 같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주택 수요 부족은 집값 하락을 불러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불경기가 짧더라도 개인의 기회와 재정에는 미치는 영향은 수십 년, 심지어 평생 지속될 수 있다.

불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경제학자는 불경기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지난 70년 동안의 경험적 증거는 불황이 단순히 긴 확장 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더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제 확장이 시간이 오래돼서 사라진다는 것은 신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장이 오래 지속될수록 좋지 않은 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서 확장은 사람과 같다.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과열-과열된 경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완전 고용

과 국가 자원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자산 거품-자산 거품은 주택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의 가격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초과하여 다투어 가격이 상승할 때 발생한다.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자산을 사들이고 그것들이 무한정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그것은 사람

들의 부를 쓸어버릴 수 있다. 금세기 두 번의 불경기는 대부분 자산 거품 때문이었다. 2000년대 초반의 불황은 종종 닷컴 버블에 의해,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된 불황은 주택 버블이 그 원인으로 여겨진다.

*경제적 충격-경제적 "충격"은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외부 사건을 말한다.

(3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은희근 목사



4면

푸른초장
나성균 목사



8면

말씀과 땅
박성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치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지아익스(임플란트)
- 구강외과/틀니
- 보철치료
- 미용성형치료
- 신경 및 잇몸치료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문 의: 714-470-4563
말씀과 땅
말씀을 묵상하며 켈리를 배우는 켈리그래피 클래스가 O.C.와 L.A. 지역에서 오픈되었습니다.

GOODTV 창사25주년, 뉴욕지사 설립 4주년 기념

이민생활체험수기 공모전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

GOODTV New York이 창사 4주년을 맞아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의 노하우를 소개해 부동산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지식을 함양하고, 크고 작은 부동산 투자의 성공 혹은 실패 체험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안정된 삶과 재정적 자유(Financial Freedom)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이민생활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공모대상: 미국내 거주 한인 / 남녀노소, 연령 제한 없음
응모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2년 10월 31일 5:00PM (미동부시간)
분 량: Letter 용지 10매 내외, 글자사이즈 10포인트, 글자간격 160%(한글, word 가능)
제 출 처: 이메일 goodtvny2022@gmail.com *응모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석교회 명시

시 상: 상금과 상패 수여

대상(1명): \$10,000 우수상(2명): \$3,000
준우수상(2명): \$2,000 장려상(5명): \$1,000

*수상자는 11월초 GOODTV New York 웹사이트와 개별 통지를 통해 알리며 시상식은 뉴욕에서 한다(정확한 날짜는 추후 발표). 수상작의 저작권은 본사가 갖는다.

주 최: GOODTV뉴욕 기독교복음방송(46-20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특별후원: Global Leadership Foundation, Property Owner's Club, 뉴욕일보

발행인 칼럼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대놓고 외롭다는 노래가 있었다.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사랑을 잊지못해/ 애타는 마음/ 대답없는 메아리 허공에 지네...'

시인은 고독할 때 견디라고 조언한다. 고독이라는 병은 견디면 되는 것일까? 다른 이들은 고독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 고독을 잊으려 하는 사람도 있다. 고독할 틈이 어디 있느냐며 바쁨 속에 자기를 집어 넣고 고독이 숨도 못 쉬게 한다. 그런 이에게도 남모르게 흘러는 고독의 눈물이 있다. 약물에 의지하여 고독을 달래려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독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사람도 있다. 아예 고독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고독은 삶에서 잠시 쉬어가는 의자 같다고도 하고, 외로움은 호수같이 아름다운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어 좋다는 사람도 있다. 고독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에게도 이 가을에 '외로움'은 왜 이리 아픈 것인가. 외로움과 함께 마음도 아프고 몸도 여기저기 욕신거리며 잠도 이룰 수 없다는 신음이 그들의 소리가기도 하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도 고독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고독에 대한 치유책은 무엇인가.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동체가 고독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다. 단순히 모여있다고 공동체가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이다. 서로 감사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이다. '순록의 태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가. 순록은 추운 지방에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다.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순록은 원을 그리며 빠르게 돌면서 맹수가 다가오지 못하게 만든다. 원 안에는 새끼들과 암컷이, 원 밖에는 수컷이 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인가. 이 모습을 위에서 촬영해 보니 마치 태풍과 같이 돈다고 하여 '순록의 태풍'이라는 말이 나왔다. 서로 사랑하며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견고한 공동체를 이길 세력은 없다.

고독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고질병이다. 외로움은 죄의 형태로 변질 수 있다. 고독이 다시는 내 삶을 짓밟지 않도록 쫓아내자.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라는 노래는 그만 부르자.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놀라운 약속도 하지 않으셨는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 13:5b)

목마른 세상에 "생수"를 공급하라!

리퀴드처치.컴, 팀 루커스/워렌 버드, 탈진한 세상에 성령의 역사로 흐르는 물줄기 공급 원리 소개

목마른 세상과 목마른 세대에 어떻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을까? 기존의 방식이 가르침이었다면, 오늘날의 세대에 필요한 방법은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전의 시대가 진리를 찾는 시대, 그리고 선을 찾는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미의 아름다움을 찾는 시대이다. "리퀴드 교회(Liquid Church)"는 복음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함을 강하게 강조하며 여섯 가지 원리/아이디어들을 통해 목마른 시대에 도시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Liquid Church: 6 Powerful Currents to Saturate Your City for Ch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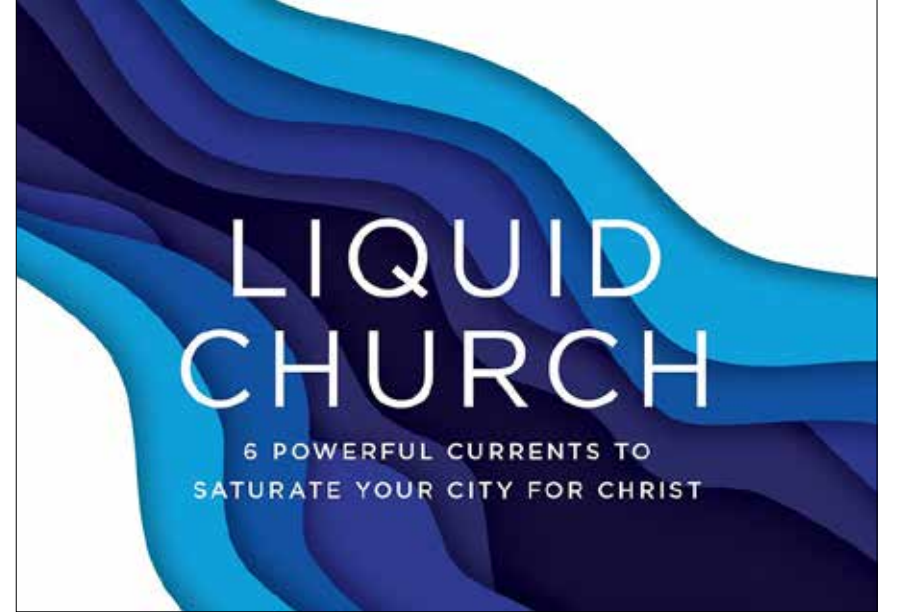
첫 번째 물줄기 :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라 (Love the overlooked) : 특수장애 사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리퀴드 처치의 첫 번째 물줄기는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특수장애 사역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묻지 않으신다. 작은 소자에게 행한 나의 선행을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신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마지막에 하나님은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일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은혜의 구원은 반드시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만약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 자체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믿음은 선행으로 이어진다. 칭의는 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교회는 소외된 사람을 돕는 것이 부수적인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 되어야 한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듣지만,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된다면 그 복음이 자기 자신을 향하기 때문이다.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비밀이다.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필요하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 물줄기 : 상상력에 불을 붙여라 (Ignite the imagination) : 창의적 커뮤니케이션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목마르게 하는 이유는 상상력의 부족 즉 재미가 없어서이다. TGIF 세상 (트위터 Twitter, 구글 Google, 인스타그램 Instagram, 페이스북 Facebook)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시간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을 사로잡으려면 좌뇌와 우뇌의 창의성을 결합해야 한



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래서 외형과 로고, 그리고 무대 디자인도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매력을 느끼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청결하고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선한 무엇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설교나 다른 가르침 속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전달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그런 고민을 통해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들이 탄생하게 된다.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복음을 더욱 신선하게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물줄기 : 갈증을 해소해 주어라 (Quench Their Thirst): 공휴 사역

사람의 목마름은 단순히 영적 목마름 뿐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전인격적 존재로 육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인 만족이 필요하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의 균형 잡힌 전인격적 회복이 필요하다.

세상의 소외된 곳과 아픔의 장소에서 자신의 은사가 활용될 때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곤 한다. 인생의 의미란 개인의 만족을 통해서만 오지 않기 때문이다. 동 교회는 르완다에 깨끗한 우물을 만드는 사역을 진행 중인데, 이것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르완다 같은 지역을 보여주고, 함께 선교여행을 하게 되면 인

생을 향한 비전을 깨닫게 될 때가 많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오늘날 세상의 고통과 필요들이 보일 것이다. 복음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사람들을 섬겨보라. 어쩌면 아픔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그곳이 나의 사명일 수도 있다.

네 번째 물줄기 : 세대를 통합하라 (Unite the Generations) : 사역 합병

교회는 유기체이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다. 사람처럼 교회도 성장과 쇠퇴를 거친다. 모험처럼 열정적이었던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을 유지하는 관리인의 형태로 바뀌기도 한다. 그러다가 장의사처럼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기도 한다. 미래를 바라보던 교회가 현재에 안주하다가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이런 교회를 다시 한번 재활성화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지는 교회의 합병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분립하고 개척하는 모델만 존재했지만, 오늘날에는 생명력있는 교회와 합병하는 것을 통해 교회가 다시 한번 재생하게 된다. 교회 건물이 있지만, 사람들이 줄어드는 오래된 교회에서 건물을 내어주고 젊은 교회들과 연합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이 폭등해서 교회를 건축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합병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다시 한번 재생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2001~2022 뉴욕권사선교합창단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19회 정기연주회 New York Exhorters Missionary Chorus Concert, 2022 불우이웃돕기/선교기금모금음악회

일시 2022년 10월 9일 (주일) 오후 6시 장소 뉴욕신광교회 33-55 Bell Blvd. Bayside, NY 11361 공연문의: 917-658-3181, 917-648-1876

창단 20주년 기념 위촉작품 칸타타

여인들의 새 노래

~ 감동어 쓰임 받은 여인들의 찬양 ~

World Premiere 세계 초연 이상윤 작사, 이가영 작곡



지휘 양재원 | 피아노 이정현 정혜민 | 협연 ROUGE Christian Chamber / YeDam Missions | Soloists 김은희 백성화 박영경 최인석 박세진

후원 한국일보 THE KOREAN PRESS 뉴욕교협

전석초대 이 음악회의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와 선교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화원은 절충히 사랑하오며 대신 기금 모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불황, 사랑과 나눔으로...

(1면에서 계속) 대표적인 예로는 1956-57년 수에즈 위기, 1973-74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금수 조치, 1978-79년 이란 혁명 등의 사건들로 인해 유가가 치솟았던 석유 파동이 있다. 널리 사용되는 자원의 공급 지장은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을 약화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 정책—시장이나 통화 공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종종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요한 이유

불경기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거나 우리의 부를 하나의 자산(즉, 우리가 소유한 부동산 등)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예상치 못한 침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음 해의 불경기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볼 수 있다.

불경기는 또한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에게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짧은 경기 침체에도 실업률이 증가하는 시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그 자체가 영적인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기부가 줄어들게 하고 긴축하게 하여 교회가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며, 이것은 지역 경제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 침체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이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와 정화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교회가 상처받은 성도들을 보살피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 기타 세부 사항

- NBER는 185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를 33차례 확인했고, 8차례는 지난 50년 사이에 발생했다.
• 평균적으로, 불경기는 약 10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1854년부터 1919년까지 평균 불황은 22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불황은 평균 18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1945년부터 2001년까지 불황은 평균 10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2007-09년의 불황은 18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공황 기간(43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목마른 세상에...

(2면에서 계속)

다섯 번째 물줄기 : 나눔을 격려하라 (Inspire generosity) : 놀라도록 풍성한 나눔

성경적 지식과 말을 잘하지만, 그 사람의 참된 변화를 보려면 그의 삶을 보아야 한다. 그의 삶이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지 타인을 향하는지를 가름하는 시금석은 그의 돈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은혜는 반드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람들을 향해 나누게 된다.

현금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동 교회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돈과 소유에 대한 성경적 잣대를 제시한다. 또한, 90일 십일조 도전이라는 상당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90일 동안 십일조를 해보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시험해보라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100% 다서 현금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너무나 도발적이고,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있는 것 같지만, 십일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보게 하는 것은 나름 교육적 효과가 있어 보인다.

십일조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재정의 10%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재정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저자의 생각은 참신하고 도발적이지만, 성도들을 하나님의 모험으로 동참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의미없이 하루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일상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교회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재정이 어떻게 사용될 때 가장 의미 있는지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일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다. 무작위적인 선행이 아니라, 이웃에 닿는 전력적인 선행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물줄기 : 숨겨진 재능을 개발하라 (Develop untapped talent): 리더십 문화

혼자가 아닌 팀을 통해 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팀워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80대 20의 법칙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려면, 목회전략이 필요하다. 저자는 설교를 짧게 마치고 예배 후에 사역박람회를 개최해서 나가는 동안 다양한 사역실명을 듣고 자원봉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받은 은혜를 바로 결단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또 만든 팀에 대해서는 통제하기보다는 맡기고 지원하라고 권유한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끝없이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팀워크는 돈독해진다. 마음을 다해 다양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주어야 한다. 더 새로운 사람들이 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격려하는 문화가 될 때 교회 안에는 좀 더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여섯가지 물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다. 에스겔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생명력이 돌아오는 것처럼 모든 사역의 중심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를 때 사람들은 소생하게 되고 교회는 생명력이 넘칠 것이다. 그 흘러넘치는 생명력을 통해 도시를 섬기고 세상을 적시게 된다.



해양사회 공헌하는 흑등고래의 삶



은희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놀라지 마시라. 흑등고래가 내는 소리는 바다 속에서 2,600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필리핀 마닐라 사이의 거리입니다. 대양 곳곳에서 고래가 내는 소리가 사방팔방으로 수천 킬로미터씩 퍼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다수의 과학자는 고래 소리를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상적인 배경음으로 여깁니다. 고래의 개체 수가 감소하면 마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배경음악이 갑자기 꺼지는 일과 같은 침묵이 바다를 습격한다고 합니다. 바다판 '침묵의 봄.'이지요. 그리고 고래는 죽어서 가족이 아니라 심해 정원이 됩니다. 고래가 죽으면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서서히 가라앉아 수천 미터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이 심해에 사는 생물에게 고래 사체는 하늘이 내리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고래 사체는 심해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이 됩니다. 심해 고래 정원은 기후 위기를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40톤의 고래 사체는 2톤 정도의 탄소를 해저로 옮깁니다. 그 정도의 탄소를 다른 방식으로 해저에 쌓으려면 2,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더구나 고래는 평생 먹고 싸며 바다의 유기물을 순환시켜 해양 플라크톤의 광합성을 돕습니다. 고래 한 마리가 나무 1,000그루만큼이나 탄소를 흡수합니다.

'부작용 없는 탄소 포집기'이지요. (인터넷 퍼온 글) 수년 전 '사이언스', '타임(Time)' 지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노스웨스턴대학교 과학자들이 과학계에서 그동안 데이터 부족으로 금기시 돼 온 사람의 성격유형(personality types)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s)과 성격유형(personality types)입니다. 성격특성이란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을 말합니다.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입니다. 각각의 머리글자를 따 'OCEAN'이라고 합니다. 성격유형이란 이런 성격특성을 가진 개개인의 성격을 유형별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설문조사를 수행한 노스웨스턴대의 마르틴 게를라흐(Martin Gerlach) 박사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약 150만 건의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지구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유형을 평균형(average), 내성적(reserved), 자기중심적(self-centered), 역할모델형(role model) 이들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들에게 던지는 화두로서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평균형 성격유형'은 매우 친화적이고, 성실하며, 외향적인 성격이지만 지나칠 정도로 신경증적이고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 성격유형'은 개방적, 성실성, 친화성 측면에서는 평균 이하인데 반면 강한 외향성을 보입니다. '내성적 성격유형'은 개방성과 신경증에선 매우 안정적이지만 반면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에서는 매우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롤모델형 성격유형'은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에서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신경증적 특성에서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게를라흐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환경이 진화될수록 대부분 '평균형, 내성적, 자기중심적인 성향'에서 '롤모델형'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흑등고래도 그런가 봅니다. 어떤 유형으로 살아가든 평생 해양 플라크톤의 광합성을 돕고 한 마리당 나무 1,000그루만큼이나 탄소를 흡수하며 일상적인 바다 배경음을 감당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 죽어서는 자기 스스로가 심해 정원이 되고 그곳에 사는 온갖 생물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가 되며, 2000년이나 걸리는 한 마리당 2톤 정도의 탄소를 해저로 옮기니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OCEAN(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중 각자 삶의 DNA, 배경, 환경, 궤적, 체험 등등 '성격특성'에 따른 '성격유형들'로 다양하게 출발하고 또한 살아가면서 변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CHRISTIAN)들은 흑등고래처럼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예수음' (예수 닮아감, CHRISTIANITY)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동네마다 '정의, 공의, 진실, 사랑'이라는 '예수음'이 '동네의 배경음'이 되어 그곳에 사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교회와 신앙의 연조가 높아질수록 '신경증(궤적)'을 최소화해 나가고 '자기희생과 헌신'을 극대화해 나가는 '역할모델형(role model)'으로 살아가, 많은 생명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삶으로 '예수쟁이' 관록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놓쳐서는 더욱더 안 되는 '신앙의 좌표'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살아있는 펄럭임'으로 불꽃과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와 신앙과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주변에 '코로나 블루'를 겪는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며, 바로 나와 교회가 그들에게 '사랑의 배경음'을 들려주고, '그들의 필요(need)에 반응하는 돌봄'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풍성을 맛보는 그런 가을 길목이 되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pastor.eun@gmail.com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위치한 미국장로교회(PCA) 소속 제일장로교회는 지난 46년동안 지역 사회의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섬겨온 교회로서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서 바른 성경적 리더십과 복음적 열정으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갈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 정규대학 및 PCA가 인정하는 신대원 (M.Div)졸업자 및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
- PCA 소속 목회자 및 PCA 교단 가입이 가능한 목회자
- 미국에서의 10년 이상 건강한 담임목회 사역 경험자
-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건강한 목회리더십을 가진 자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이중언어(한어/영어) 가능한 자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포함)
- 자기 소개서 "구원과 목사로써의 소명과 사명에 관련 내용" (한글과 영문)
- 대학(B.A.) 신대원(M.Div) 혹은 그 이상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 소속 교단 총회 혹은 노회 발행목사 안수 증명서
- 추천서 2부 (동료목회자 1부, 노회 혹은 신학기관 1부)
- 최근 설교 동영상 Link 또는 File E-mail (영어설교가 가능한 분은 영어설교 추가)
- 가족 소개 사진이나 동영상
- 목회 계획서

제출 및 문의

- 제출 마감일: 2022년 10월 31일
- 제출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atlkfpcinvite@gmail.com
- 전경태 장로 678.362.7788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6175 Lawrenceville Hwy, Tucker, GA 30084 www.kfpcchurch.com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도키마스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 영화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이정재), 감독상(황동혁) 등 6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에 출연하여 유명해진 오영수 배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우연한 기회에 행운처럼 온 게 아니라, 작은 내 몫 가운데서 지금까지 한 길을

들리지 않고 걸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각자의 길에서 그렇게 묵묵히 해 온 사람들이야말로 모두 자기 삶에서 1등이 아니겠는가." 반세기가 넘도록 배우의 길을 묵묵히 걸은 58년 차 배우의 고백이 많은 사람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때가 되면 인정받습니다. 설령 사람들은 끝까지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섬긴 나의 수고를 하나도 빠짐 없이 다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라."(딤후 2:15)

'인정'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스'입니다. 1세기 아테네 도시에서는 돈을 쇠 동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권 앞에서는 양심을 버리고 불법으로 만든 돈을 유통하는 환전

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합법적으로 만든 돈만 유통한 환전업자들을 '도키마스'(인정한 사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도키마스'로 불려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도키마스'로 불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의 자아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삶을 드러야 합니다.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러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시련하게 해 드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 삶을 드러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복음으로 영적 성경을 넓히는 일에 삶을 드러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의 고용주는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이란 헬라어는 '길을 똑바로 낸다'라는 의미를 지닌

니다. 혼란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수시로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내가 살고, 나의 뒤를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는 주의 일꾼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의 일에 헌신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도키마스)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립시다.

푸/른/초/장

나성균 목사

(살롱장교회)



어려서 고등학교 시절에, '청춘예찬'을 읽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때는 아직 나이 들 어본 적도 없고, 늙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청춘이 정말로 그렇게 좋은 것인가? 하였지만, 지금 생각을 해 보니 정말이지 그렇게 찬양할 만한 것이 청춘임에 틀림이 없다. 누구나 청춘을 구가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바른 판단에서 최선으로 각자의 청춘을 살아야, 또한 자기의 장래가 결정되는 정말로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본문에서는 청춘을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보다 조금 더 강한 말씀이다. 문제는 과연 지금 이 시대 특 특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순종 할 수 있는나 하는 것이다.

어느 필자가 최근에 육군 사관학교에서, 또 도산 아카데미에서 MZ세대에 대하여

터, 로봇, 드론, 메타버스 등이 생활 도구이고 경쟁 무기이다. 과연 MZ 세대와 2010년 초반이후 태어난 이 알파 세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렇다면 이 두 세대를 통틀어, 그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이 통

도하신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을 한 사람, 당시 모든 좋은 것을 거침없이 누리던 사람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AD 50년대 60년대를 살던 한 사람 로마 황제 그는 어마어마한 궁궐에서 살면서 모든 호사는 혼자 다 누리었다. 절대로 부족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복도의 길이가 1 마일이나 되었다. 상아와 자개로 장식된 이복도를 지나는 초청자들은 이슬같이 쏟아져 나오는 향수를 맞으면서 걸어서 황제에게로 가서 그를 알현하였다. 그는 자기의 나귀나 조랑말의 신발

에 올라가 보았고, 그의 말과 같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 처럼 여기면서, 가장 비참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장막을 깎고, 누구보다 겸손하게 살면서도 잠도 견디고 너그럽게 마가를 용서하고 끝 없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가던 그에게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라 부름 받으심을 조 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시시 때때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었고,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었다. 위대한

씨, 높임 받고 있는 기적을 체험하라.

지금부터 약 1 세기도 전에 웨일즈 지방의 가난한 과부에게 아들이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약 5 마일을 쏟아지는 비를 뚫고 당시의 그 지역의 거의 유일한 의사였을 분에게 쫓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었다. 의사는 참으로 난감하였다. 비가 퍼붓는 밤에 무려 5 마일을 왕진을 가야한다니 당연히 망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치료비를 낼 리도 만무하여 보였다. 또 이 어린 아이를 고쳐봐자 시골의 노동자에 불과할텐데... 그러나 고맙게도 이 의사는 인간애와 책임감으로 부인을 따라 가서 이 아이를 생명의 경각에서 구해 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놀랍게도 그 고비를 넘기고 나중에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고, 훌륭하게 자라 영국의 정치계의 거물이 되었다. 재무장관, 군수장관, 국방장관을 거쳐,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수상으로 의사자신을 포함한 영국민을 살리는 위대한 정치가로 살게 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이다. 그가 재무장관이 되던 날 이 의사는 "비가 퍼붓는 밤 길을 5 마일이나 가서 그 시골 가난한 농가의 소년을 구한 것이 바로 영국의 대 지도자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 영국의 수상이 된 조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의사를 높여 주셨는지? 필자는 이 순간을 이렇게 생각하여 본다. 마찬가지로 사망의 비가 쏟아지던 죄악의 죽음의 경각간에 경험하게 된 우리를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왕진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예수님은 빌 2:5 이하와 같이,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의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것이다.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겸손히 세대를 뛰어넘는 말씀성취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자!

revskna@icloud.com

“젊은이여, 젊은이들아!”

베드로전서 5장 5-6절

1. 겸손하라 하신다.

이 말씀은 함께 장로 된 자들에게 주시던 교훈 곧 나도 같이 장로 된 자로서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하던 베드로의 겸손한 권면이다. 자원하고, 더러운 이, 곧 물질적인 이득을 위하여가 아니며, 본을 보여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하여야 하던 말씀의 대응으로 주신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수사도요, 잘못된 교황청의 주장처럼, 교황으로서, 혹은 하루에 삼천 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최고 담임목사인 슈퍼스타로서 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의 앞에선 겸허한 직분자로서 신실하게 권면하던 말씀에 대하여, 그러면, 장로가 아닌 그 외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다. 특히 나이적으로도, 비교적 젊은이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장로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닌 영적으로 아직 어린 초신자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가 아닌 모든 교우라고 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어쨌거나, 자칫, 젊음만 믿고 자만하거나, 자신만만하든지, 혹은 교회 생활이 낯설기 때문에 자행하지하기 쉬운 이들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인데, 곧 겸손하라 하신다. 겸손하면 순종할 수 있다. 또, 순종하면 겸손한 것이다. 본문 첫 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장로에게 순복하라 하신다. 순종

강의를 하였다. 정보화 시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개인주의를 확산시킨 신자유주의에서 사는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분출 시기에 살던 MZ세대 곧 태어난 젊은이들에 대하여 특 징을 설명하였다. 정의, 인권, 공정, 평등에 민감하며, 합리와 과학 기술을 앞세워 사는 이 세대로부터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특히 군대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율성을 인정하면, 날고뛰지만 간섭하고 통제하면 거침 없이 대드는 세대에, 군에서 당한 어려움을 상상하여 보라. 아무리 합법적인 계급 사회이고, 위계질서가 분명하며,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기에 교육과 훈육으로 바로잡으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들의 자율에만 맡기면 업무처리의 막강한 강점이 나타나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스마트 폰은 군의 보안 유지에 지장이 있고, 지나친 오락은 병영 생활의 단점이기 때문에 스마트 폰을 압수하였다. 난리가 났다. 죽기 살기로 대들었다. 할 수 없이 여러 번의 대화회의를 통하여 사용허락을 한 결과 우울증과 자살률이 훨씬 줄어들었다.

더구나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알파 세대이다. 이 자들이 군에 입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5G, AI, 빅 데이

터, 로봇, 드론, 메타버스 등이 생활 도구이고 경쟁 무기이다. 과연 MZ 세대와 2010년 초반이후 태어난 이 알파 세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렇다면 이 두 세대를 통틀어, 그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이 통

용되는 말씀일까? 물론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그들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의 청년들의 세대, 무한한 경쟁력과 함께 살고, 뛰어난 능력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일처리를 따라갈 수 없는 세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칫 기계화되고 인간미가 사라지기 쉬우며, 서로의 부딪치는 사귀이 사라질 수 있어 공허하여 지고, 인간의 한계와 고독에 겨워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삶의 도전 앞에서 여전히 돌아야 할 말씀, 순복하라. 겸손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삶의 방식이고, 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자기의 능력과 인간의 위대함 앞에서 한없이 건방지고 자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탄의 강한 메시지 앞에서 삶을 교만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는 세대에게 여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책망하시고 올바른 인

을 은으로 신겼다. 낫시 바늘이 굵어졌다. 머리에 쓴 왕관은 약 40-50만 달라나 되었다. 값비싼 옷이 즐비하여 한 없이 저장되어 있기에 한 번 입은 옷은 다시 입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15년이나 황제의 위치를 누리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다만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자기를 하나님같은 신으로 섬기라고 명령하였다. 이 사람이 곧 네로 황제이다. 그는 시감을 살린다고 로마를 불지른 사람이고 그 원인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린 극악 무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대적하시었는가? 행복도 만족도 없이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끝내게 하시었다.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동시대에 살던 또 한 사람 바울,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고 무지마치하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즉시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자기의 교만과 야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때로는 핏빛고 굶주리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쇠사슬에 매이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기도 하였으나 쫓아오는 기쁨과 내세를 맞이하는 기대로 충만하였다. 아무도 가보지 못하였을 삼층천

사도요, 가장 유명한 13권의 성경 저자요, 순교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는 말씀의 약속대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2. 높여 주신다. 하신다.

본문 6절은 5절의 강조요, 보충이다.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다. 겸손의 원리와 결과를 말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 아래에서 란 말은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발견되나 구약에서 가끔 발견이 되고 그것은 곧 출애굽의 능력을 표시한다. 그 큰 능력 앞에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의 위치에서 겸손하라. 당시의 최고 통치권자요, 막강한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바로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시니 더욱 실감이 나는 것이다.

겸손의 결과는 무엇인가? 때가 되면, 하나님 자신이 그를 높여 주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이다. 연단이 되고 이제 높여 주실 만하고 높여 주셔도 다시 교만하여 해를 입지 않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생각이 되실 때 내가 홀연히 언제 벌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남자도 정말 임신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윗 사진의 올해 Mother's Day에 켈빈 클레인 회사가 남자도 엄마가 될 수 있다고 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트랜스 정책에 손을 잡고 만든 홍보사진들입니다. 켈빈 클레인은 "모든 트랜스들을 포함한 엄마들에게도 축하를 보낸다"는 메시지를 내보내 화제를 일으킨 사진들입니다.

위에서 보이는 임신한 남자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남자 흉문제 주사와 약을 사용하여 남자처럼 보이는 것에 성공을 했으니, 여성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지 않았기에, 임신을 한 남자처럼 보이게 한 트랜스젠더 여성입니다.

위내용 관련 기사: <http://tvnext.org/2022/05/calvin-klein-pregnant-man/>

기업들뿐 아니라, 간혹 양심을 팔은 의사들 중에서도 남자의 임신 가능성을 운운하고 있기에 오늘 그 topic을 의학적 측면에서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남자도 임신할수있다"는 이론 / 오피니언: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SRM) - 미국 생식의학회의 퇴임 회장인 리처드 폴슨 (Richard Paulson) 박사는 ASRM의 연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여 박수도 받았지만 많은 비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는 말하길 "이론적으로 언젠가는 남성도 임신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내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임신하기 힘든 여성들을 위한 자궁 이식 수술의 발전이 여성처럼 임신을 원하는 남성들에게도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문제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을 못 할 만한 명백한 문제도 보이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궁을 갖고 싶어하고 이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트랜스 여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폴슨 박사의 이론에 반박하는 수많은 의학적 논리들:

폴슨 박사의 이런 개념이 나오자마자 양심과 소임대로 일하고 있는 여러 여성임신 / 자궁 전문가들은 폴슨박사의 "남성에게 하는 자궁이식 가능성" 이론은 매우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이론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성공한 케이스도 없을 뿐더러, 남자에게 자궁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가상을 해도, 그 수술이 과연 안전한 시술로 성공할 수가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필자는 이론은 이론일 뿐, 그 일을 성공리 끝내는 것은 꿈과 현실의 엄청난 차

이점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1. 한 예로, 뉴욕 대학교 의과대학 의료 윤리학 과장이자 생명윤리학 교수인 Arthur Caplan은 자궁 이식은 "현재까지 매우 실험적인 단계일 뿐" 지금까지 자궁이식에 대한 절차는 오로지 여성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까지 여성들의 한 예로서 "오로지 실험 시험의 일부로만 수행되고있다"

Arthur Caplan 의과교수는 말하길, "누군가 외과적으로 내일 남자에게 [자궁]을 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네' 라고 할수 있지만, '네' 라는 대답은 현실적으로 수술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동반한 답이 아니기에 매우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즉, 트랜스 여성(남자가 여자)이 남자의 생식기를 드러내고 여성의 자궁을 남자 몸속에 넣는 절차의 성공을 테스트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실험, 무엇보다 실패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고통 등, 총체적인 안전성이 얼마나 있는지 매우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2. 니클라우스 어린이 병원 태아 치료 센터의 의료 책임자인 사이마 아프탐 (Saima Aftab) 박사도, 산부인과 분야가 아직 남성에게 산부인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아프탐 박사에 의하면, 자궁 이식은 비교적 새로운 절차로 201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0여 건의 이식 수술밖에 시행되지 않았고 2020년까지 100여개, 미국은 30개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의사들은 9번의 자궁 이식을 시행했으며

이 중 5명의 여성들은 성공적으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미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여성들에게 시행된 자궁 이식은 장기가 감염되어 제거함으로 실패했고 2021년 리포트 된 거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성공한 14개의 여성자궁 이식 중 11명의 환자들만이 출산이 성공했다고합니다.

아프탐 박사는 자궁이식이 여성들에게 실패 뒀음에도 불구하고 자궁 이식과 관련된 여러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자체는 적절한 혈액 공급을 위해 장기가 신체의 정맥 및 동맥에 적절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이며 "혈액 공급에 문제가 있으면 장기가 죽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들은 신체가 새로운 장기를 거부하지 않도록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해하는데, 이러한 약물 또한 감염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남성에게 여성의 자궁 이식을 해야할 경우 방금 얘기한 위험요소들 위에 몇 가지 추가 위험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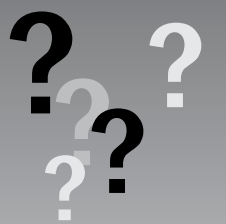
아프탐은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가 자궁을 위한 공간과 혈액 공급을 위해 처음부터 남자 몸속에는 자연적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이 훨씬 더 복잡하기에, 위험성 역시 훨씬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남성은 임신을 지원하지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으므로 임신을 위해서는 많은 호르몬 요법이 필요하며, 이는 추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 가서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왜 교회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키는지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지요?

- LA에서 Lee 집사

A: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으므로 그 날을 복되게 하여 사람에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심계명에서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그 기원이 유대적입니다. 고대의 전통에 따라 유대교에서는 제 7일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온전히 지켰습니다. 히브리어 사뵈는 "쉬다 또는 중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휴식의 날로서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제정하신 것으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필요는 물론이고 전인적이며 신체적 요구까지 충족시키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6일 동안 노동 후의 쉬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진정한 안식의 개념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참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쉬고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참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여 참 안식을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주일은 첫째 날로서 창조의 첫날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란 구원의 사건을 통해 참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구 창조를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라면

주일은 구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한 신 창조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새날 즉 주일을 제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날을 지키게 하심으로 구약의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일인 주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진정한 안식이 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죄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 안식과 평안이 있으며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사건(Saving Event)을 통해서만 참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이 구 창조를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라면 주일은 구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한 새 창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보좌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새 창조를 찬양합니다. 이것을 새 노래 (new song)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누릴 참 안식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주일로 그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 28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쉬(Rest)은 죄용서를 통한 진정한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면 초대교회도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성일로 지켰습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구약의 안식일은 노동 후의 안식이라면 신약의 첫째 날은 주일에 안식함으로 힘을 얻어 일하는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일에 성회를 모여 신령한 은혜를 받아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승리한다는 개념입니다.

Latin America Future Mission Strategy and Leadership Forum

남미 기독교 지도자 초청 선교대회




리마 행사 Dec 9-14, 2022 (5박 6일)
 페루 국가 조찬 기도회 Dec 10, 2022
 남미 기독교 지도자 선교대회 Dec 12-13, 2022
 Sheraton Hotel Convention Center, Lima, Peru

선택-쿠스코, 마추픽추 Dec 13-16, 2022 (3박 4일)
 쿠스코 지역 목회자 연장교육 Dec 14, 2022
 잉카의 도시 쿠스코 문화 유적지, 마추픽추 방문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로 문의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mail : iea@midwest.edu

주관: IEA 국제복음주의협회 Peru
 공동주최: IEA 국제복음주의협회, Midwest University
 협력: 페루 국가미래전략 연구재단, 페루 국립센마르코스 대학교(대학설립 1551년), KWMC, KWMA, KWMF, KIMNET
 협찬: 페루 TV 방송국, CTS TV, CGNTV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제국주의 선교의 종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서거한 후 영국 식민지 시절의 과거에 대한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왕의 죽음에 애도하지만, 여왕의 죽음으로 지난 이백년간 이어져 온 식민 시대의 잔재들이 다시 조명되고 있

니다. 제국주의 착취로 유익을 얻었던 국가들에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인도와 남아공에서는 영국 황실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왕관에 박혀있는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에 자국의 식민 세력으로부터 혈값에 착취해간 것이며 당시의 거래는 불법이며 부도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대영제국 박물관에 전시된 많은 값진 보석과 유물들은 영국이 무력으로 착취한 결과물들이므로 식민지 도난품에 대한 송환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관계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영국이 형식적으로만 군주제를 유지하고 왕의 역할은 상징적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영국의 지배 아래 있던 나라들은 아직도 엘리자베스 여왕을 큰 고통을 가져다준 제국주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영국 연방의 56개 나라들이 (Commonwealth States) 한때 영국 국왕을 자신들의 국가 원수로 생각했던 흑역사를 지우기 위해 열심입니다. 독립 후 아직도 재정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국가들은 식민지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종속 국가의 자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식민지의 존재는 이제 재정적 식민지로 여전히 영속되어 있기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선교는 물량주의 선교요 돈으로 지배하던 선교였습니다. 물론, 영국은 19세기부터 당시에 엄청난 수의 선교사들을 세계 전역에 보냈습니다. 영국이 가진 힘과 영국교회의 선교적 열정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당시 영국교회가 자랑하던 돈의 위력으로 무장한 식민지 정책과 선교정책이 맞물려서 서로 주머니 받거나 하면서 상부상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지 못하고 서구교회의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예배형식과 신학이 퍼져가면서 오히려 기독교의 이미지를 흐려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식민지 시절의 선교는 돈으로 건물 짓고 돈으로 패권을 쥐

고 땀땀거리며 교회 확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21세기 선교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선교계에서는 돈 없이 하는 선교와 섬김의 선교로 전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재정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선교는 중단 없이 계속되는 모습에서 그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변화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으로 진행되지 않고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퍼져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러, 점령지서도 우크라이인 강제 동원”

자극 남성에게 군 동원령을 내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에서도 우크라이나인을 강제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관리와 목격자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등에서 상당수 남성이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이 지역 18~35세 남성은 이동이 금지된 상태다.

자포리자에서 사람들의 탈출을 도와온 할리나 오디노리는 “지금도 대피를 도와줄 수 있는 날은 전화가 많이 오지만 불행하게도 이제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점령지가 된 자포리자주 멜리토폴의 전 시장 이반 페도로프도 러시아의 징병을 피하려면 “일단 크림반도로 이동한 다음 유럽이나 조지아로 피신해 우크라이나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같은 국민끼리 총을 겨누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점령지 내 국민에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러시아 동원령은 피하라”고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러시아군에 입대할 경우 내부에서 적의 활동을 방해해 우크라이나를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4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투표는 사실상 강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에서 23~27일 러시아와의 합병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선 총으로 무장한 러시아군이 집마다 방문해 투표를 받고 있다. 한 현지 주민은 BBC에 “찬반은 직접 말로 대답해야 했으며 군인이 종이에 답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AP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주민들이 투명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일부 투표지는 찬반 표시가 그대로 노출됐다.

세르게이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러시아 합병에)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은 따로 기록돼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리스트에 오른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멜리토폴의 한 여성은 “아버지가 ‘아니오’라고 답해 우리 가족은 박해를 받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지난 23일 자포리자에서 투표를 마친 500명을 상대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93%가 러시아 영토 편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집트 폭탄 테러... 심상찮은 이란, 목숨건 시위 확산

하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20대 여성의 죽음에 항의하는 이란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이란 도시 80여곳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목격자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해진 현장을 보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경찰

은 테헤란 한 아파트 단지에 최루탄을 던지고 장문을 향해 총을 쏘았다. 시위대는 보안군을 구타하고 차에 불을 질렀으며 여성의 복장 등을 감시하는 ‘풍속 단속 경찰’ 본부를 폭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이란 국영TV는 시위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최소 4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수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31개 주(州) 가운데 한 주에서만 여성 60명을 포함해 739명이 체포됐다.

시위는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22·여)가 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다 지난 16일 숨지면서 시작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까지 하잡을 불태우며 20대 여성의 죽음에 항의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란 지도부의 부패와 정치탄압,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테헤란대를 비롯한 시위 현장 수십 곳에서 ‘독재자에게 죽음을’ 구호가 나오고 있다.

거듭된 개혁·개방 실패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기를 느낀 이란 국민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 지도자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위에 이란 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국민적 분노를 보여준다. 알리 바예즈 국제위기그룹이란 책임자는 “젊은 세대는 잃을 것이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날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와 평온을 반대하는 자들에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엔화·위안화 폭락, 아시아 제2 금융위기 올 수도”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에 26일 다른 아시아 국가의 통화 가치도 하락했다. 최근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의 심각한 약세는 1997년과 비슷



한 아시아 금융위기를 다시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일본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전날보다 1.08%(오후 5시30분 기준) 오른 달러당 143엔을 기록했다. 엔화는 올해 들어 가치가 25% 가까이 떨어져 주요국 통화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크다. 태국 바트도 이날 달러당 37.88원으로 약세를 보였다. 통화 약세 여파로 증시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225)는 2.12% 급락했고 대만 자취안지수도 1.89%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높은 엔화와 위안화의 가치 하락이 신흥국 시장에 대한 공포를 키워 자금 이탈 러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날 진단했다. 특히 한국 원화를 위기에 취약한 통화로 지목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6일까지 4주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에서 8억5800만 달러의 자본 순유출이 발생했다. 올해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간 누적 자금은 650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보다 많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촉발한 달러 강세 탓이다. 문제는 엔화와 위안화의 환율 하락이 아시아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가파르다는 데 있다.

싱가포르 미즈호은행 비수뉴 바라탄 전략책임자는 “엔화와 위안화 약세는 아시아에서의

무역과 투자에 있어 통화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이미 어떤 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스트레스를 향해 가고 있고, (환율) 손실이 깊어지면 다음 단계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BS그룹 타이 무르 바이그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아시아 국가에는 통화 위험이 금리보다 더 큰 위협”이라며 “아시아는 수출국이어서 거대한 부수적 피해가 없더라도 1997년이나 98년(외환위기)의 재현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90년대에도 공격적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자본은 아시아 신흥국에서 이탈해 미국으로 옮겨갔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 경제가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높아져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봤다.

영국 경제학자 짐 오닐은 97년 수준의 금융위기의 방아쇠가 당겨질 시점을 엔화가 달러당 150엔까지 떨어지는 때로 봤다. 엔화는 지난 22일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발표 이후 달러당 145엔 후반까지 밀렸다.

맥쿼리캐피탈의 한 전략가는 “엔화와 위안화가 모두 하락할 때 가장 취약한 통화는 한국 원화, 필리핀 페소, 태국 바트 등 경상수지 적자 상태에 있는 통화”라고 말했다. 그는 “두 통화의 하락 압력은 신흥시장 통화에도 노출된 사람들의 달러 매수와 헤징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伊 총선 우파연합 승리... 거세진 ‘극우’ 바람에

25일(현지시간) 실시된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 극우 정당 ‘이탈리아 형제들(FdI)’이 중심인 우파 연합이 승리했다. FdI의 조르자 멜로니



(45) 대표는 사실상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가 됐다. 아울러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극우 정당이 이탈리아를 이끌게 됐다. 유로존 3위 경제 대국에서 극우 세력의 집권으로 유럽연합(EU)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총선 개표 결과 하원은 99.9% 진행된 가운데 우파 연합이 43.8%, 중도좌파 연합이 26.1%를 득표했다. 상원은 99.9%가 개표됐으며 우파 연합 44%, 중도좌파 연합 2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우파 연합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멜로니 대표의 FdI는 정당 중 가장 많은 26%를 얻으며 지난 총선보다 20%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상승했다.

우파 연합의 승리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집권당인 좌파 연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탈리아의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9.0% 상승했다. 야당인 우파 연합은 에너지·식료품 가격 급등을 좌파의 책임으로 돌리며 세를 확장했다.

하지만 멜로니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당장은 에너지 위기와 높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우파 연합을 구성하는 ‘진진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와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와의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두 사람은 인기가 급상승한 멜로니 대표를 견제해야 한다는 공통된 기류가 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멜로니 대표의 집권으로 유럽에 부는 ‘극우 바람’은 더 거세졌다. 스웨덴에선 지난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네오 나치에 기반한 스웨덴민중당이 20.6% 득표율을 기록하며 원내 제2당으로 우뚝 섰다. 지난 6월 프랑스 총선에서도 유럽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이 우파 간판으로 자리했다.

이들 국가 모두 이민과 난민에게 적대적인 토양 속에서 우파가 성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리카 이주민·난민이 자국으로 몰려들자 반이민을 내세운 극우 세력의 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인플레이션·에너지 위기 등도 유럽의 민심에 불을 붙였다. CNN은 “상황이 더 나빠지

면 더 많은 위기가 불가피하고 이는 포퓰리스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미래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EU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전선에 균열이 예상된다. 멜로니 대표는 선거 국면에서 러시아 제재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연정 파트너인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정반대의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일각에선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 이후 EU가 논의하기 시작한 8차 대러 제재안에 이탈리아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美 “러, 핵무기 사용시 제재적 결과 초래할 것”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강제 합병할 경우 추가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 선을 넘으면 러시아에 제재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비공식 채널과 고위급 대화를 갖고 “러시아에 제재가 될 것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A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미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러시아가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동원령을 내리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전쟁은 승자가 없고,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러시아는 지난 2월부터 전개된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영토를 병합하는 것을 목표로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은 이번 주민투표가 푸틴의 동원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덫이라고 비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될 거라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탄약, 정보 등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 뜻을 거듭 밝혔다.

日 10월 11일부터 외국인 무비자 여행 허용... 조건은?

일본 정부가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해 외국인 무비자 여행을 허용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패키지 투어로 한정하는 조치를 해제하고 비자 면제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시점인 2020년 3월부터 한국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로 최장 90일까지 체류를 허용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허됐던 이 조치가 다시 도입된다.

다만 무비자를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증명서, 혹은 출발 72시간 안에 발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쓰노 장관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일일 입국자 수를 5만명으로 제한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앞서 지난 7일부터 하루 입국자 수 상한을 기존 2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가이드 없이 여행사를 통해 항공·숙박권을 구입하는 패키지여행을 허용한 조치에서 추가로 완화됐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55. 안시흠 (1882-1971)

안시흠(安始愼)은 1882년 1월 16일 한국 전주 인근 완산촌산리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중퇴했다. 24살이던 1905년에 미국 꿈을 품고 사바리아 기선을 타고 그해 5월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는 로마자 알파벳으로 Ahn Shi Heup, Ahn See Hup 또는 Ahn Syheup으로 썼고, 영어 이름은 헨리였다.

안시흠이 하와이에 온 지 11년이 되던 1916년 2월에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 감독이었던 윌슨 S. 루이스 목사가 소집한 제11차 연회가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 해 감리사는 윌리엄 H. 프라이 목사였고, 한국인 총무는 김C.H였다. 이 연회는 안시흠을 가와이 섬의 리휘와 길나위아 지역에서 노동하고 있던 한인들에게 파송하였고, 최태C를 리휘 지역의 지역 설교자로도 파송했다. 안시흠의 선임자였던 김C.S는 리휘 뿐만 아니라 길나위아와 하나마울루 지역도 맡은 데 반해 안시흠은 리휘와 함께 길나위아 지역을 맡았다. 1년 전만 해도 한인 노동자가 거주했던 길나위아와 하나마울루 지역에는 한인 노동자가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은 반면에 길나위아 지역에 한인 노동자가 새롭게 거주하였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1916년 2월에 김C.S가 보고한 리휘, 길나위아 그리고 하나마울루 지방에 주일학교가 3곳에 있었고, 교사와 직원이 8명이었으며, 등록된 학생은 38명이었다고, 세례교인수가 122명이었다고, 엠위스 연맹 고등부에 가입한 수가 30명이었다고, 예배당이 하나 있었고, 그 시가가 1,500달러였다. 그달에 리휘에 주일학교가 있었고, 1,500달러 시가의 예배당이 있었으며 엠위스 연맹 고등부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1917년 하와이 선교 연회록을 찾지 못해 안시흠의 1년간의 선교 사역 통계를 확인할 수 없어 안타깝다.

1917년에 하와이 선교연회 제12차 회의가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안시흠은 목사 준회원 과정을 위한 수습 과정 1년 차에 들어갔다. 이 연회에서 그는 1년 전과 같이 가와

이 섬의 리휘와 길나위아 지역으로 파송받았다. 1년 후인 1918년 3월에 성인 세례자가 8명이었다고, 아동 세례자가 9명이었으며, 유아세례를 받고 아동 세례를 받은 자가 48명이었다고, 학습 교인이 27명이었다고 이 중 지난 1년간 학습을 받은 자가 18명이었다. 주일학교가 세 곳에 있었고, 교사와 직원이 5명이었으며 등록된 학생이 45명이었다. 엠위스 연맹에 등록된 자는 없었으므로 엠위스 연맹은 활동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예배당은 리휘와 길나위아, 두 곳에 있었는데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500달러에 해당했고, 사택은 리휘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가는 1,000달러여서 예배당 시가의 두 배였다. 그런데 이들 건물에 든 1년간 비용은 196달러였다.

자선비로 1,515달러를 헌금하였는데 헌금비로 45달러였고, 다른 목적을 위한 헌금이 1,470달러였다.

1918년 3월 중순에 하와이 선교연회 제13차 회의가 감독 아드나 W. 레오나드 목사의 소집으로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였다. 안시흠은 J.M. 크루즈와 함께 준회원 수습 과정 2년차에 있었다. 최S.E는 병환으로 한국어로 귀국하여 수습 1년차 과정에 머물렀고, 일본인 스텝도 계속 1년차 과정에 머물렀다. 본 연회는 안시흠을 지난 2년 동안 파송되었던 가와이섬의 리휘와 길나위아 지역으로 다시 파송하면서 임병순과 황교표는 권사로 파송하였다. 그해 10월에 안시흠이 제출한 세계 제1차대전 징집서류에서 그가 중간 키에 중간 체구였음을 알게 된다.

매트 S. 휴즈 감독의 소집으로 1919년 3월에 호놀룰루에서 하와이 선교연회 제14차 회의가 모였다. 그런데 안시

흠은 박기흥과 함께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이 연회에 참석할 수 없었고, 작년에 이어 집사 목사로서 준회원을 위한 수습 2년차 과정에 있게 되었다. 이 연회에서 안시흠은 작년과 같이 가와이섬의 리휘와 길나위아 지역으로 파송되었다. 그리고 함준후와 송공선이 리휘 지방에 권사로 파송되어 안시흠의 리휘 사역은 크게 도움이 되었으나 그만큼 사역이 컸음을 알게 된다.

안시흠이 1년간 사역한 1920년 2월에 리휘와 길나위아 지역에는 성인 세례 교인이 3명이었다고, 아동 세례 교인은 4명이었으며, 유아 세례자로서 아동 세례를 받은 교인이 20명이었다고, 학습 교인은 10여 명이었는데 그해 학습을 받은 교인이 4명이었다. 그해 2명이 사망하는 슬픔이 있었다. 주일학교는 리휘에만 있었는데 교직원 2명이었다고, 7명이 등록했다. 작년과 같이 리휘 예배당은 시가가 500달러였고, 사택은 1,000달러에 해당했다. 지난 1년간 건물 수리와 보수를 위해 100달러를 지출했다. 지난 1년간 100주년 헌금으로 30달러를 헌금했다.

그런데 안시흠이 1919년에 가와이섬 콜로아 지역과 막가웰리 지역에 파송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1920년 하와이 선교 연회록에는 박WT가 파송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안시흠은 1917년에 파송된 리휘와 길나위아 지역 선교는 1920년 2월까지 3년간이었다.

A.W. 레오나드 감독의 소집으로

1921년에도 안시흠은 국민보 편 집인으로 활동하였고, 이듬해 안시흠은 1913년에 동지회가 창간한 태평양잡지 부편집인이 되었다.

1921년 2월에 호놀룰루에서 하와이 선교연회 제16차 회의가 감독 아드나 W. 레오나드 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그런데 안시흠은 지난 해에 하와이 선교연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선교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그의 이름은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의 콜로아-막가웰리 지역 선교 기간은 길어도 2년이 되지 않는다.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를 떠난 안시흠은 이승만이 조직한 한인기독교회에서 사역하였다. 1924년을 전후하여 그는 학갈나우 가마이 지역에서 목사로 활동했다. 그해 1월에 모인 하와이 한인 교민총단 의사회에 안시흠은 학갈나우 지방 의사원으로 출석했다. 이 의사회에 총단장에 김영기가 피선되었고, 부단장에 박기흥이 선정되었다.

그해 11월 2일에 청년회 통상회에서 임원을 선정하였는데 회장에 지만미, 부회장에 엄승문, 통신국장에 박세별, 재무에 최아지, 교제국장에 이산술, 인제국장에 김점이었다고, 안시흠은 학무국장에 선임되었다. 그달 8일에는 한인을 특별히 사랑하던 농주 로스 내외를 환영하였는데 안시흠이 환영회 취지를 설명한 후 박성환의 환영사, 주일학교 유년반의 찬송가, 지만미와 이산술의 이창장과 힐로 중학생 안순래와 흥세라의

안시흠은 1924년경부터 1929년 초까지 적어도 4년간 학갈나우 지역 선교 사역에 몸담았던 것으로 보인다. 1929년 4월에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평신도회의에서 본 교회 담임이었던 민찬호의 후임으로 안시흠과 이명우가 거론되었다. 이명우가 58표를 얻어 목사로 추대되고 안시흠은 51표를 받아 부목사로 선택되었다. 이명우가 담임목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안시흠이 임시 담임목사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이명우가 임시로 목회하였다고 한다.

안시흠은 1930년을 전후하여 하와이에서 태어난 18세의 이완익을 고용하여 꽃농장을 운영하였는데 1933년경까지 계속됐다. 그런데 1937년 호놀룰루 전화번호부는 안시흠이 와와이아와 한인 감리교회 목사로 소개하였고 1938년 전화번호부에서도 그가 위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한인감리교회가 아니라 한인가독교회로 보인다.

태평양잡지의 후신으로 태평양양주가 1930년부터 발간되었다. 1938년에 주필에 이완순이었고, 편집인에 안시흠이 책임을 맡았다. 이듬해 김이제가 태평양양주의 주필이었고, 안시흠은 편집인이었다. 그해 2월에 한인가독교회의 기속사 주방 설비 대체, 기속사 집기 교체, 그리고 2명의 간호 선생 월급을 위하여 3,993달러 모금을 위한 모금특별위원을 선정했을 때 부인반과 남자반으로 나누었는데 안시흠은 7명 남자반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호랑 지방 공동회와 호랑지방 동지회 서기로 선임되었던 안시흠은 그해 우리의 사업부흥이라는 책을 펴내 동지회, 기독교, 학원 그리고 외교 사업이 부흥했다고 적었다.

동지회 총서기 겸 재무를 안시흠이 1940년 3월에 사면하면서 국민보의 출판을 맡았는데 1942년을 전후하여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참고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했다. 1942년에 국민회 기관지인 국민보와 합동으로 국민보-태평양양주가 되었다가 1944년에 다시 태평양양주가 되었다. 1946년에 안시흠이 태평양양주 주필 겸 편집인이 되었다가 1950년 3월에 그만두었는데 그의 나라 사랑은 1958년 1월에 미포 대한인 동지회 연례대표회가 그를 통신 서기로 선정함으로써 계속되었다.

안시흠의 마지막 선교 사역은 1958년에 힐 한인가독교회 담임목사로 파송되면서다. 그는 1971년 6월 2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향년 89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위의 교회에서 사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mien.sohn@gmail.com

1916년 2월 가와이섬의 리휘와 길나위아 지역 파송 1924년 학갈나우 가마이 지역에서 목사로 활동 1958년에 힐 한인가독교회 담임목사로 파송

1920년 2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하와이 선교연회 제15차 회의가 있었고, 이 연회에서 안시흠은 연회 준회원인 집사 목사를 위한 수습 2년차에 등록되었고, 오아후 섬의 와일드나와 가루구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다. 그런데 1921년 2월 연회록에서 와일드나 지역 통계가 없어 안시흠이 1년간 수고한 선교 통계를 확인할 수가 없다.

하와이 교민단체가 통합하여 한인합성협회가 조직되어 1907년에 기관지로 한인합성신보를 창간했다. 2년 뒤 한인합성협회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던 공립협회와 연합하여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가 되면서 그해 한인합성신보를 개제하여 신한국보를 발행했다. 그런데 1913년에 신한국보를 국민보로 개제하였다. 정해규가 외교와 통신에 집중하기 위하여 국민보 주필을 사면함에 따라 1920년 10월에 안시흠이 국민보 주필이 되면서 나라 사랑에 뛰어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평일 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경음), (917) 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Tel: (718) 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www.cpcny.org, Tel: (516) 387-9940, 9942 (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주산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1부예배: 오후 1:30 다산교회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구역모임 Tel: (646) 270-9037 kimhee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일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광명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신인문학대학예배: 매주 목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6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주일 3부 오후 1:50분 창일예배: 오후 2: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eongsoonwong@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 433-06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rnur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www.kqp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286-4400 nychpress@gmail.com info@nc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선교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부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 Tel & Fax: (562) 6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N 1Y7	하와이 행복안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Tel: (808) 585-1869 1130 N. Linnit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법선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 33-36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말씀과 땅 (18) - 이삭의 하나님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이삭. 그는 이스라엘의 세 족장 중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창세기 22장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모리아 제단에 올려놓은 사건, 또 창세기 27장의 자신의 쌍둥이 아들들의 이야기 속에서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다 결국 작은아들 야곱에게 속는 장면으로 더 잘 알려진, 그래서 어느 주석가의 말처럼 성경에 "조연"으로 캐스팅된 인물이라는 평가가 안성맞춤인 사람이다.

그런 조연과 같은 인물인 이삭에게 전적으로 할애된 한 장의 성경이 있다 - 창세기 26장. 이 장 안에서 이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그렇게 조명된 이삭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자.

첫째,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갯렛(D. Garrett)이 살핀 바와 같이 창세기 26장에 묘사된 이삭의 삶의 다섯 사건은 아브라함이 겪은 다섯 사건과 내용적으로, 순서적으로 유사하다: 1. 부르심과 약속(창 26:2-6; 12:1-3); 2. 아내-누이 사건(창 26:7-11; 12:10-20); 3. 다름과 양보(창 26:14-22; 13:1-12); 4. 확신과 제사(창 26:23-25; 15:1-21); 5. 브엘세바에서 맺은 아비멜렉과의 계약(창 26:26-33; 21:22-24).

특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듯이(창 12:10), 이삭의 삶 역시 "흉년"이 그 시작을 알렸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창 26:1).

창세기 26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때와 유사한 사건들을 맞고 있는 이삭을 대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의 지식.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바로 그 면을 일깨워 이삭에게 확신을 주신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창 26:24).

아브라함이 안 하나님을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알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 때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창세기 26장의 증언은 이를 읽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둘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그러나 이삭의 삶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답습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와 "계약", 즉 불가침조약을 맺고자 브엘세바로 찾아온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창 26:28). 이는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했던 말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창 21:22).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긴 했지만 그가 농사를 지어 백배나 얻었다는 기록은 없다. 유목민들이 목축을 기반으로 사는 것과 달리, 농사는 한 땅에 기반을 두고 정착해 살아야 가능한 경제 활동인데, 이삭은 목축뿐 아니라 농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다. 더구나 "흉년"이 든 땅에서 말이다(창 26:1).

이렇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이삭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흉년을 피하고자 애급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시받은 땅에 계속 거주했기에 성취된 약속의 복이었다: "애급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창 26:2). 그래서 이삭은 세 족장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해 이삭은 오직 리브가 만의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의 세 족장 중 유일하게 일부일처의 삶을 산 사람이었다.

넷째, "너와 네 자손"

마지막으로 창세기 26장은 "너"와 "네 자손"이란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 26:3);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전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창 26:4).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이 때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어진 새 이름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함은 아울러 야

조연으로 캐스팅된 사람이 창세기 26장을 통해 주연이 된 사람 이스라엘의 세 족장 중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떠나지 않은 사람 이스라엘의 세 족장 중 유일하게 일부일처의 리브가와 산 사람

다음과 같은 말을 더한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창 26:29). 여기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원문상에서 연계관계로 표현된 것인데 이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이렇다: "너는 이제 여호와와 복 받은 자니라". 다시 말해, '복 받은 자'라는 뜻과 아울러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는 표현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비멜의 눈에 비친 이삭은 그 부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가운데 성취된 여호와와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창 24:1). 하지만 그 복의 구체적 면모는 이삭의 때에 이르러야 드러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때에 백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창 26:12-14).

지시하신 땅을 떠나지 않고 평생 그 땅에서 살며 하나님의 복의 성취를 받아 누리던 족장이 되었다.

셋째, "그의 아내"

그렇게 큰 복을 받아 누리던 이삭에게 닥친 가장 큰 위협은 아마도 리브가와 관련된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창 26:7).

이 역시 이삭과 그 부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관찰되는 유사점들 중 하나인데,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 없이 아비멜렉이 나서서 그 사태를 수습하게 된 경우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리브가가 이삭의 유일한 아내라는 점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외에 첩 하갈(창 16:3)과 후처 그두라(창 25:1)가 있었고, 야곱에게는 레아(창 29:3), 라헬(창 29:30), 빌하(창 30:4), 실바(창 30:9) 네 아내가 있었다. 이에 반

함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같이 갖는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사 41:8).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삭의 후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26장은 이삭을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바르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중요한 장이 된다.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약속받은 땅에 이름을 붙였듯이 이삭 역시 족장으로서 "에셀", "시나", "르호봇"(창 26:20-22) 등 새 지명을 만들고, 그 아버지가 "브엘세바"라 부른 우물(창 21:31)이 위치한 성읍 전체에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임을 보여주고 있다(창 26:33).

자칫 "조연"처럼 보이는 이삭.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족장이었고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낼 때 이삭의 이름을 꼭 밝히셨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창 3:6).

spark4@gordonconwell.edu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사범대학교 교수)

리모델링

한 달 전에 집을 리모델링을 했다. 이십 년 전 이사 올 때만 해도 깨끗했는데 살다 보니 군데군데 늘어진 카펫과 상업용 세제로도 없어지지 않는 이곳저곳의 물 때가 눈에 거슬렀다. 몇 년 전에 카펫을 마루로 바꾸고 페인트를 새로 했다. 부엌과 욕실도 개조하고 싶었지만 예산이 너무 커져서 그만두었다. 그런데 이번 봄에 친구 사모님이 우리 집까지리로 이사를 했는데 집을 고쳐보고 와서 보라고 해서 갔다가 우리 집도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견적비가 적잖이 부담되었지만 어차피 이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면 지금 조금 무리가 되어도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이었다. 꼬박 삼 주가 걸려서 리모델링이 끝났다. 집을 고치면서 여러 면으로 불편함도 있었지만 감사한 일을 생각한 것도 많았다. 먼저는 친구 사모님의 넉넉한 마음과 환대가 감사했다. 먼저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집을 비우는 것이 좋겠다는 말에 친구 사모님은 선뜻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했다. 목사님 부부는 삼십 년 전 남편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했던 분들이다. 남편이 떠난 후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아이들도 돌봐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 오랜 세월을 떨어져 살다 보니 가끔씩 안부만 전하는 사이로 바뀌었는데 우리 집 가까이로 이사를 오시면서 다시 한 동네 이웃이 되었다. 집을 고치는 동안 목사님 댁에 머물면서 사모님과 이야기, 저 얘기를 나누며 옛 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집 리모델링을 계기로 목사님 부부와 다시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옛 것을 버리고 철저하게 부수야 한다는 간단한 진리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공사를 시작한 첫 이틀은 그야말로 기존의 것을 다 부수는 작업이었다. 욕조가 있던 자리도, 부엌도 양상하게 기초만 남기고 다 헐어 버려서 그동안 생활했던 공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삭막했다. 먼지를 일으키며 부수는 일이 끝난 후 거의 삼 주 간은 다시 세우는 일을 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전의 생활방식에 젖은 옛 사람을 가져없이 부수고 새 사람들이 덧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 과정은 먼지가 풀풀 나듯이 복잡하고 불편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것이다.

또한 깨끗하게 바뀐 공간을 다시 정리하는 일은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일을 필요로 했다. 요즘은 simple life를 강조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정리해주는 직업도 생겼다.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연결된 기억도 함께 떠나보내는 것이기에 나는 물건을 잘 못 버린다. 지금 안 버리면 나중에 자식들이 흥보면서 버린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이참에 오랫동안 안 쓰던 물건을 많이 버렸다. 정리를 도와 준 친구들이 안 쓰는 물건을 다 버리는 은근한 peer pressure도 작용했을까? 오랜 세월 동안 차고 정리장에 있던 남편의 실고 비디오편 박스도 과감히 버렸다. 그 다음 날, 나중에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보게 하더라도 남겨 놓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외로웠을 때 언니들이 보낸 편지들, 남편을 잃고 막막할 때 아버지께서 보내신 30년이 넘는 편지 등은 아직 버릴 준비가 안 되어서 다시 집안으로 들여놓았다. 버리는 것에도 각자가 편리하게 버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들도 동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릴 때 각자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 버릴 수 있기를 기다리며, 격려하며, 도와주어야 할 것 같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www.lbcgoc.com 1700 S.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1:00 결혼예배: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1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속에 물려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roadwa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323)30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jpac.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배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주일학교: 오후 1:30(수-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l/bethel@bc.org,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실비치 사랑교회 (Sea Beach St-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 클럽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f)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상담사목: (월-금) 오전 10:00(오후 4:30) 사목대상: 1. 영성사역자 2. 교회 발전도 여성성도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이나 3. 말장사역 4. 네트워킹 사역 www.elpisfamily.org, Tel: (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례기도회: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66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310)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n.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 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g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주일학교: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전 9:30 영어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im@hbci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기도와 많은 소중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주어진 자원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유려한 자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달란트 활용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엘리아 시대에 아합왕은 그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악용한 사람입니다. 그 능력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웨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박해하고 엘리아를 사지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합왕의 신하 궁내 대신 오바다라는 그가 가진 권위와 소유물로 선지자 백명을 양분하여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하여 살려주는

선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선하게 잘 사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소유물과 파워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풍성한 자원들을 잘 활용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용하였던 그 많은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은 사건 중에 가장 현저한 사건은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는 맑은 대낮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입니다. 바알 선지자 사백 오십명을 처결하는 능력의 엄청난 현장을 만들어 낸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어쩌면 엘리아 시대와 같을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긴가민가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어느 일간지에 실린 한 수필가의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글로 기억이 됩니다. 그분은

교회도 다닌 것 같습니다. 그분의 아내도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간호사인 그의 아내가 칠십을 넘기지 못하고 참혹한 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종교에 낙심하여 호소하는 듯 쓴 글이었습니다.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는 남겨진 그 남편의 안타까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게 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그 운명을 수필가답게 원망하는 내용의 글은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느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면서 그 장례식 집례를 목사가 아닌 승려를 불러서 불교식으로 교회에서 했다는 대목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교식 장례식을 교회에서 하도록 허락한 그 교회와 목사도 이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반항하듯이 교회에서 불교식으로 아내의 장례식을 하게 한 그 남편도 이해하

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마치 엘리아 시대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엘리아처럼 하나님의 살아 계신과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갈멜산에 임한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이 시대 우리 사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제단에 내러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펜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갈멜산의 무너진 제단처럼 우리 교회 안과 밖에는 무너진 제단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 제단이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니다. 가정 제단이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영상 예배로 주일 현장 예배 제단이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수요일 혹은 주중 제단이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늘의 불로 응답을 받으려면 무너

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심지어 교회의 미래까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당도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엘리아처럼 갈멜산으로 올라 거룩한 믿음의 용기로 사생결단의 자세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천만 가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은 겁을 먹고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절망하여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엘리아의 믿음과 엘리아의 사명감을 불태우며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활용할 때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황금 열쇠요 기도가 희망입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 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 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약 5:17-18) cyd777@hotmail.com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주최 2022 총회 교육부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2022 총회 교육부 세미나 성료”

‘코로나19 엔데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리셋’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총회장 이행보 목사) 교육부(이하 총회 교육부)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022 총회 교육부 세미나’를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에서 개최했다. RE*(Reset, Reproduce, Repeat)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총회 교육부 이사장 박인화 목사와 이은상 목사가 주강사로 나섰다. 박인화 목사는 누가복음 ‘물라와 돌다(눅 10:38-42)’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은상 목사는 ‘제자 재생산에서 교회 재생산으로’, ‘초대교회에서 재생산하

는 교회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영어 목회부(부장 박래위 목사)가 함께 참여해 한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됐다. 총회 교육부장 정영길 목사는 환영사에서 “리워낸 목사는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을 실행하는 가장 좋은 길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라고 말한다. 제자가 제자를 생산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따라야 할 사역”이라고 전했다. 총회 교육부 세미나 개최예배는 텍사스 북부지방회 회장 유영근 목사와 박래위 목사의 환영사, 최영이 증경총회장의 기

도, 교육부 총무 이종직 목사의 말씀, 문대연 목사의 축도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직 목사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를 한국어로 바꾼 ‘다시 3제공(요 4:9-16)’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 목사는 ‘다시’라는 단어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말이라면서 “코로나19 엔데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리셋”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리셋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고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백 투 베이직(Back to Basic)”이라면서 “리셋의 축은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재생산을 하고 열매 맺는 다시 3제공의 역사가 이뤄지기 바란다”면서 “말씀과 예배 회복의 역사가 배가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리셋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리포트해서 리프로듀스의 주인공이 되자”고 권면했다. 한편 이번 총회 세미나에 참석한 한 목사는 “남침례교단에서 일어나는 재생산과 회복의 바람이 기대되는 세미나였다.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좋은 기반들이 잘 구축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시카고 시내 중심을 지나며 모든 차량이 볼 수 있는 고속도로의 빌보드에 구원파 그라이아스 합창단 광고되었다

다시 기승 부리는 구원파... 그라이아스합창단 공연

성도들에게 경각심과 공연 참석자제를 막아야

그라이아스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LA 공연이 오는 10월3일 오후 7시 LA 다운타운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다. 하지만 이 공연의 주최인 그라이아스합창단은 구원파(박속수 계열)에서 운영하는 합창단 공연이다. 지난 9월16일 뉴저지 뉴악에서 시작돼 오는 10월14일 플로리다 마이애미까지 열리게 된다. 지난 주말 9월24일 콜로라도 덴버, 25일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28일 워싱턴 스포켄, 29일 시애틀에서 열렸으며, 30일 알

라스카 앵커리지를 거쳐 10월2일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3일 로스앤젤레스, 4일 네바다 라스베가스 등 미서부지역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 그리고 뉴멕시코 앨버커키, 오클라호마 털사, 텍사스 샌안토니오와 휴스턴,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테네시 맴피스, 조지아 아틀란타, 플로리다 올랜도와 마이애미까지 미 18개주 25개 도시에서 열리는 그라이아스 합창단의 공연은 광미혹하는 영들의 공연인 만큼 참석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참석자제를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구원과 박속수 집회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했던 교계는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카고의 경우 시내 중심을 지나며 모든 차량이 볼 수 있는 고속도로의 빌보드 등 크리스마스 칸타타 소식이 하루 990번, 한 달간 약 60,000번씩 광고가 나갔다. 그 외에도 주요 TV 방송국과 라디오 및 잡지 홈페이지에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무료로 칸타타 소식이 올라가면서 시카고의 모든 시민들이 칸타타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카고 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은 NBC와 FOX 등 미주류 방송에 출연하여 공연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너무나 정도도 고요하다. 이는 진리를 수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려진 양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며 영적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라이아스합창단의 공연일정에 해당되는 지역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공연에 참가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박준호 기자>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후 단체 사진 촬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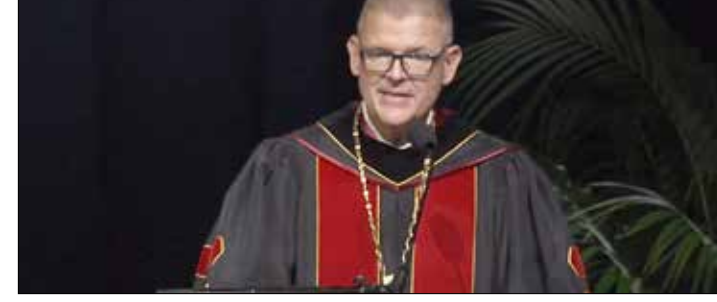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9월 기도회 “회복과 번영”

허연행 목사, 미국을 다시 일으킬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사명 강조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회장 손성대 장로) 9월 기도회가 “회복과 번영”이라는 주제로 9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에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인사를 통해 뉴욕지회 회장 손성대 장로는 “국가조찬기도회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순수한 평신도 기도운동 단체이다. 반세기 전에 세워졌으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인사했다. 손성대 장로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온갖 질병, 전쟁, 지구온난화, 재해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절실하다. 이럴 때 뉴욕지회에서 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평화를 위해, 교계와 차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미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운동을 벌일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제54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2022년 12월 5일에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다음 날인 6일에는 국제친교를 위한 조찬기도회가 국회 대강당에서 개최된다”라며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9월 기도회는 사회 강현석 장로(명예회장), 국가조찬기도회 소개영상 상영, 애국가와 갓베레스 아메리카 제창, 대표기도 장세환 장로(사무총장), 성경봉독 정훈간사, 특별찬양 뉴욕장로성가단, 말씀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연행 목사는 옛적같이 하소서(예레미야애가 5:21)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허 목사는 한국과 미국이 영적으로 찬란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듯한 현재의 모습을 지적하며 “옛적같이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다. 허 목사는 한국에 대한 기도 제목 가운데 70~80년대에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했던 기도의 야성, 믿음의 야성을 되찾아야 하며 우리만이라도 무릎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 허 목사는 미국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영적, 도덕적으로 기울어져 가는 미국을 다시 일으킬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사명을 강조하며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대 장로(뉴욕지회장)의 인사 후, 합심통성기도가 진행됐다. 남태현 장로(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장)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 김재관 장로(뉴욕장로성가단 증경단장)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 그리고 경제안정을 위해, 전병삼 장로(뉴욕장로성가단 단장)는 교계와 목회자를 위해, 박해용 장로(부회장)는 차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박용기 장로(수석부회장)가 마무리기도 후에, 허연행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제18대 아담스 모리스 총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아담스 모리스 총장 취임

“그리스도 중심의 비전과 변혁적 사고방식을 가져올 것”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제18대 총장 아담스 모리스 박사(Adam J. Morris, PhD) 취임식이 지난 9월21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본교 웨스트캠퍼스(701 E. Foothill)에 위치한 Felix Event Center에서 열렸다. 토마스 밀러 APU 이사회 의장은 “모리스 총장은 풍부한 경험과 지도력, 기독교 고등 교육에 대한 비할데 없는 헌신과 수고를 가지고 있다”며 “그는 이 대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비전과 변혁적 사고방식을 APU에 가져올 유일한 인사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본교 이사회는 지난 3월 모리스 박사를 제18대 총장으로 결정했으며 7월1일부터 모리

스 박사는 총장직을 시작했다. 모리스 신임 총장은 “APU 커뮤니티에 가입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보다 더 강력할 수 없었다. 저는 이 신성한 리더십 위치를 맡게 되어 감사하

고 영광”이라며 “APU의 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들의 힘과 비전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길을 인도할 것”이라 밝혔다. 모리스 총장은 바이올라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탈북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및 기독교 교육학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그는 2007년 부총장으로 리더십 팀에 합류하여 바이올라대학교에서 탁월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했다. 가장 최근에는 수석 부사장, 최고 혁신 사무소 및 최고 기공 발전 책임자를 역임했다. 그와 그의 아내 페이스는 캘리포니아 주 라하브라 하이츠에 살고 있으며 6명의 자녀, 4명의 손주를 두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남서부지방회 주최 목회자세미나

신학주제를 선정하여 성서신학적으로 설명

미주성결교회 남서부지방회(회장 김현석 목사) 주최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9월 19일(월) 오전11시에 산성성결교회(담임 윤석형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길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열렸다. 세미나는 25명이 참석하여 1시간여 진행되는 동안 시

종일관 진지하게 주제 강의를 경청하였고, 이후 식사와 친교의 시간에도 질문이 이어지는 등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강사 윤석길 박사는 최근(질문하며 읽는 바울신학)을 출간하였는데, 미성대학교(총장 이상훈 박사)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11편목 계속>

동부교계 기사판

2022 제9차 다민족선교대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 주최로 제9차 다민족선교대회가 10월 16일(주일) 오후 5시부터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린다. 주강사로 김재열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문의: 회장 황규복 장로 917-204-9870, 준비위원장 송정훈 장로 917-921-3310

뉴욕교협 제49회기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 등록 접수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에서 제49회기를 이끌어 나갈 회장, 부회장, 감사에 입후보 희망자들의 등록 접수를 받는다. 자격과 등록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뉴욕교협 웹사이트(www.nyckcg.org)를 참고하면 된다. 등록기간: 2022년 10월 3일(월)-7일(금) 오후 4시 까지 등록장소: 뉴욕교협사무실 244-9767th Ave. Little Neck, NY 11362

▲문의: 뉴욕교협 718-279-1414, nyckcg@gmail.com / www.nyckcg.org

2022 밀알의 밤 - 윈더걸스 선예

뉴욕밀알선교단(단장 김자승) 주최로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22 밀알의 밤이 "새롭게 하소서(Reset)"라는 주제로 윈더걸스 선예와 함께 10월 8일(토)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린다.

▲티켓구입 및 문의: 뉴욕밀알선교단 nymilal@hotmail.com 917-692-7755



안나산기도원 원장 이취임 감사예배 후 참석자들과 사진 촬영을 했다

안나산기도원 3대 원장 김영창 목사 "영적인 파수꾼 역할 감당할 터"

1983년 설립 후 40주년 맞아 이취임 감사예배 진행

워싱턴DC 근교인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안나산 기도원은 1983년에 이경숙 목사가 초대 원장으로 시작했다. 1983년에 슈가로프 마운틴을 배경으로 약 160에이커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부지를 구입하고 시작했으며, 그동안 베데스다와 실로암 성전을 건축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포장하여 발전의 기반을 쌓았다. 그리고 2015년에 이경숙 초대원장이 퇴임하고 문석호 목사가 2대 원장에 취임하여 사역을 하다, 40주년을 맞은 올해에 이임하고 김영창 목사가 3대 원장에 취임했다. 안나산기도원 원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9월 22일(목) 오후 4시에 열려 3대 김영창 목사가 취임했다. 감사예배는 경배와 찬양 김성훈 목사(WTS 교수 및 교목), 사회 한창훈 목사(워싱턴 총신동문회 회장), 대표기도 심만우 장로(이사), 특별찬양 뉴욕효신장로교회 성도들, 설교 한정길 목사(워싱턴에수사라교회 원로), 봉헌 및 특별찬양 양근식 강도사(효신교회 지휘자), 인사 및 광고 장진홍 장로(이사장), 봉헌기도 및 축도 이상목 목사(메릴랜드한인목사회 회장, 영광장로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웨사픽신학대학원 총장, 한사랑장로교회), 특별연주 김예은과 하은 자매, 신임 원장에게 취임패 전달 이사 김엘레나 권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임 원장 김영창 목사는 고흥화도교회 담임, 공주신앙과 지성 공동체 부원장, 효신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 3대 원장이 됐다. 김 원장은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골든콘월신학교 목회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김영창 원장의 인사말씀과 내외빈 소개, 그리고 폐회 및 감사기도 차용호 목사(워싱턴교협 증경회장, 센터빌한인장로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안나산기도원이 이 시대의 사명자들과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을 양성하는 영적 훈련소로, 명실상부한 기도원으로 새롭게 거듭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일에 함께 하실 분들이 이사로서 동참할 수 있으며 뜻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육 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와서 은혜를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공간으로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속삭이듯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남침례회 한인총회 목회부 이사회 뉴욕 방문

뉴욕지방회 목회자들 격려와 위로

8백여 한인교회들이 속해있는 미남침례회 한인총회의 목회부 이사회(부장 박규석 목사)가 뉴욕을 방문했다. 한인총회 목회부 이사회는 9월 19일(월)에 리틀넥에 있는 미즈빌 식당으로 뉴욕한인지방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며 격려와 위로를 했다. 뉴욕한인지방회 회장 한필상 목사는 "총회 목회부가 팬데믹으로 어려운 목회현장에서 수

고하는 지방회 목사들에게 총회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교단이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침례교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욕한인지방회에서는 뉴욕을 방문한 이사진에게 뉴욕방문을 기념하는 선물을 준비하여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동노회 제91회 정기노회 후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KAPC 뉴욕동노회 제91회 정기노회

뉴욕십자가교회 김진형 목사 인수식 진행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 5개 노회들의 가을 정기노회가 뉴욕동노회를 마지막으로 마쳤다. 뉴욕동노회는 제91회 정기노회를 9월 20일(화) 오전 10시 뉴욕은누리장로교회(조문휘 목사)에서 열었다. 개회예배는 사회 노회장 신철웅 목사, 기도 부서기 문신인 목사, 성경봉독 회록서기 이문범 목사, 설교 및 성찬 예식 집례 노회장, 축도 전 노회장 이규섭 목사, 광고 서기 차석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 △조

문휘 목사의 김세중 목사(복음으로사는 교회) 목사회원 가입 청원 △제자삼는교회(이규섭 목사)의 장유성 목사 목사회원 가입청원 △주사랑장로교회(정주성 목사)의 장로 3인 증택 청원 △뉴욕십자가교회(문신인 목사)의 김진형 목사안수 및 교육목사 청빙 청원 △임원회의 김동수 목사(바울신학원 원장)를 무임목사에서 전도목사로 변경 청원을 처리했으며 뉴욕십자가교회 김진형 목사 안수식이 진행됐다.

(정리: 김재상 기자)



빙햄튼한인침례교회 취임 감사예배 후 수상목사 가정과 지방회원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빙햄튼한인침례교회 우상욱 목사 취임감사예배

대학캠퍼스를 섬기는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

1983년에 개척되어 대학 캠퍼스를 섬겨 온 빙햄튼한인침례교회에 우상욱 목사가 6대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감사예배가 9월 18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드려졌다. 예식은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에서 주관했다. 예배는 사회 박준수 목사(지방회 부회장), 기도 이문호 안수집사, 설교 한필상 목사(지방회장), 권면 박진하 목사(윈즈침례교회), 취임사 우상욱 목사, 취임패 증정 지방회장, 감사 및 광고 우상욱 목사, 우상욱 목사 가정을 위한 축복기도, 축도 박진하 목사, 만찬 감사기도 이영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필상 목사는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빌립보서 2: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필상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와서 은혜를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공간으로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속삭이듯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우상욱 목사님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본 교회에 오심으로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빙햄튼한인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우상욱 목사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에서 신학 석사와 기독교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논문과정 중이다. 뉴라이프교회(위성교 목사)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 청빙을 받았다. 우상욱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기도대로 대로 대학 캠퍼스를 섬기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 드렸다. 빙햄튼한인침례교회의 비전인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Bring Them In), 말씀으로 제자훈련 시키고(Build Them Up), 세상의 복음전도자로 보내는(Send Them Out)"을 보고 감동했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서 목사와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한인지방회 목회자들과 식사 후 사진촬영을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교육부주관 제46회 목사장로기도회 성향

(1면에서 계속)

이어 엄영민 목사(남가주/전총회회장)가 '영성있는 목회'란 주제로 강의했다. 엄 목사는 '영성'의 개념 정리로부터 시작해 어거스틴, 칼빈, 리처드 베이커, 조나단 에드워드, 김전수 목사 등의 영성의 흐름을 소개하며 "목회자들이 목회를 위해서 또는 자신을 위해 영성이 깊어지기를 갈망한다. 개혁교회 목회자들의 영성이야말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목회자들의 영성을 늘 새롭게 하고 깊게 해줄 복된 영성의 샘물"이라고 강의했다.

한편 첫째 날 이동훈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KAPC 산하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영성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총회 산하 650여 교회에 성령으로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케 하소서', '총회 파송 선교사 107가정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영성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총회 산하 성도들이 성경 쓰기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소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기도 왕성하게 쓰임 받게 하소서'의 제목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한 뒤, 이준우 목사(가주), 이소용 장로(로스앤젤레스), 이동진 목사(남가주), 유진상 목사(하와이/교육부), 오성관 목사(룩키마운틴)가 대표로 기도한 뒤, 주기도문으로 첫날 모든 순서를 마쳤다.

둘째 날(화)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기도회와 세미나는 정기대 목사(뉴욕/교육부)사회로 시작 돼, 홍기표 목사(중부/총회장)가 '다민족과 함께 하는 교회', 한일철 목사가 '선교지향적인 교회'라는 주제로 강의 했다. 이어 허윤준 목사(뉴욕/교육부)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 돼 '다민족과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소서'(배움환 목사/남가주),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박항배 목사/캐나다), '목사님들이 강단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양경선 목사/남가주), '교회 장로님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주시옵소서'(신철웅 목사/뉴욕)의 제목으로 기도회를 가진 뒤 정금태 목사(뉴욕)의 축도로 낮 순서를 마쳤다.

같은 날 저녁집회는 홍성우 목사(룩키마운틴)의 사회로 시작 되 조용철 목사(가주)기도와 '다음 세대를 계승하는 준비'의 주제로 김재열 목사(뉴욕/전 총회장)의 강의를 있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들이 되어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조영찬 목사/뉴욕), '교회 안에 신실한 교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허락해 주옵소서'(하은원 장로/룩키마운틴), '곳곳에서 일어나 재난과 전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복구가 있게 하소서'(이재량 장로/뉴욕), '총회의 임원들과 상비부들이 주어진 책임 잘 감당하게 하소서'(이윤석 목사/뉴욕), '47회 총회 개최를 위해 총준위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김종현 목사/동남)의 제목으로 기도한 뒤 김승기 목사(동남)의 축도로 둘째 날 모든 순서를 마쳤다.

셋째 날 오전 9시 장우호 목사(가주/교육부서기)의 사회와 이승로 목사(동남/교육부)의 기도로 시작된 폐회 예배는 김지현 장로(뉴욕) 성경 봉독에 이어 홍기표 목사(중부/총회장)가 '유연한 자의 복'(마태복음 5:5)의 제목으로 설교한 뒤 축도로 모든 기도회 일정을 마쳤다.

본 목사장로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아름다운 곳에서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한 위원들과 룩키마운틴 노회, 사랑의 교회에 감사로 표했으며 내년 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영상취재 이성자 기자)



뉴저지교협 제36회 정기총회 후 단체사진

뉴저지교협 제36회 정기총회

회장 박근재 목사/부회장 김동권 목사

뉴저지교협은 제36회 정기총회를 9월 20일(화) 오전 10시 뉴저지순복음교회(이정환 목사)에서 가졌다. 임원선거를 통해 회장에는 부회장이었던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목사부회장은 총무였던 김동권 목사(뉴저지새사람교회), 평신도부회장에는 회계였던 전경영 장로(필그림신교회)를 선출했다. 목사 회장과 부회장은 선관위에 각각 단독 후보로 등록하여 추대됐다. 이번 뉴저지교협 36회기는 현장실무형 회장단이다. 박근재 목사는 뉴저지목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김동권 목사는 2회기 연속 총무로 일했다. 제2부 회의는 회장 고한승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투표시 25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제35회기 표어는 '회복과 연합'이었다. 회장 고한승 목사는 "정기총회의 문제로 인해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야 하는 혼돈이 있었지만, 회원들의 지혜와 이해의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임사를 했으며, 특히 2만 불 이상을 교회회관 건립기금에 이할 수 있어 참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35회기의 사업

은 제35회기 시무 예배 및 이취임식, 세제제와 물티슈 나눔,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사순절 연합 특별영양새벽기도회, 우크라이나 전쟁종식을 위한 특별연합기도회(대사관에 기금전달), 부활절연합새벽예배, 전직회장단 부부동반 위로연, 뉴저지호산나전도대회 및 목회자 세미나, 이단과 사이버대책 중 화상 세미나, 교협 웹사이트 개설 등이다. 재정보고에 따르면 지난 회기 이월금 \$2,612, 총수입 \$105,867, 총지출 \$100,525으로 다음회기에 \$7,953을 이월했다. 신임회원으로 레드락교회(김재열 목사)와 C&G교회(공동담임 박지우, 권기현 목사)가 가입했다. 또 회칙위원회가 상정된 회칙 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체적으로 혼란을 주었던 선거의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했다. 선관위의 임기를 "차기 선관위가 구성될 때까지"에서 "총회와 함께 임기를 종료한다"라고 수정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2022년 제2차 권태진 작사·문성모 작곡 신작 찬송가 봉헌예배

“한국에도 찬송가 작사, 작곡가가 있다는 것 알려야”

한국찬송가개발원(이사장 권태진 목사, 원장 문성모 목사)이 ‘2022년 제2차 권태진 작사·문성모 작곡 신작 찬송가 봉헌예배’를 25일 저녁 군포제일교회(담임 권태진 목사) 예루살렘예배당에서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신작 찬송가 봉헌예배에서는 ‘하늘의 영광 버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넓은 들 풍년 솔바람에’, ‘밤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산보다 더 높은 주님 사랑’, ‘우리 주님 구름타고 오시리라’,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네’, ‘주님은 나의 방패와 병기’, ‘지금까지 내가 산 것’, ‘하나님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등 총 12곡의 신작 찬송가를 발표했다.

1부 예배는 권태진 목사의 사회로 서헌제 목사(한국교회법학회장) 기도, 군포제일교회 할렐루야찬양대의 찬양(하나님의 크신 사랑) 후 문성모 목사가 설교했다. 문 목사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한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마음껏 찬양해야 한다”고 설교 했다. 이날 예배는 김향안 목사(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는 신작 찬송가 봉헌시간으로 진행됐다. 문성모 목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찬송가를 수입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를 만들고 그것을 세계로 수출해, 한국에도 찬송가 작사가와 작곡가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문화는 선교의 중요한 매체”라고 봉헌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이동현, 피아노 강석희·김윤경, 군포제일교회 할렐루야성가대, 혼성



중창단 등이 신작 찬송가들을 연주했다.

이날 작사자인 권태진 목사는 “글에서 부족함을 느꼈지만, 목회적 고백을 곡으로 노래할 수 있으니 설교자로서 정말 기쁘다. 오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찬송가개발원은 한국 찬송가를 개발하고 보급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개원했으며, 권태진 목사의 찬송시에 문성모 목사가 곡을 써서 지금까지 총 52곡의 찬송가와 복음성가 및 각종 대회를 봉헌했다. 권태진 목사는 1978년 군포제일교회를 개척해 44년간 목회하고 있으며,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총 18권의 시집을 출판했다. 또 한교연 대표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연) 회장을 맡고 있다.

작곡가 문성모 목사는 앞으로 1,000곡의 찬송가를 작곡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권태진 목사의 가사로는 100곡을 작곡해 별도의 ‘찬송집’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치에 의존한 일방적 종교인 과세 지적 안타까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계와 교계의 주장 대립

종교인 실효세율 1%도 안된다 종교인 소득 구간별 차등 비율 고려하지 않아

“종교인의 실효세율(전체 소득에 대해 실제로 내는 세금 비율)이 1%도 안 된다.”(장혜영 정의당 의원) “종교인 소득의 구간별 차등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종교인이 근로자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는 데 대해 기독교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2020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이 0.7%에 불과하며, 이는 근로소득자 실효세율(5.9%)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한세연·공동대표 김영근 이상복)은 24일 반박자료를 내고 “(장 의원의 주장은) 전체 1%도 안 되는 몇몇 대형 종교단체 대표자의 종교인 연소득으로 종교인의 소득이 많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거의 대다수인 저소득 종교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또 다른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독교 세무재정 전문가 한세연은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회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한세연은 “20만명 이상인 근로 소득인수 가운데 국세청에 신고한 자가 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보면 종교인의 절반 이상은 소득이 없음을 나타내”면서 “이들 대부분은 대리운전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종교인들에 대한 격려나 지원 없이 몇몇 수치만 열거·비교하는 건 종교인들의 고뇌를 저버리고 오해만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실례 따르면 2020년 9만명의 종교인은 1조660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고, 이들의 납부세액은 1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1인당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면 평균 13만3000원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1949만명의 납부세액은 44조1640억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인 227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장 의원은 “종교인의 평균 세액이 적은 이유는 소득신고액이 근로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있지만 종교인에게 유리한 제도도 한몫했다”면서 “종교인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증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실제로 소득세 부과대상 종교인의 94.1%(8만4800명)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 경비율은 70.9%로 2020년 노동자 평균근로소득공제율(24.4%)을 크게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세연은 “종교인 평균 경비율(70.9%)의 경우, ‘종교인 소득구간별 차등 필요경비율’을 통해 추론해보면 종교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287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필요경비율이 높은 것은 오히려 종교인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세연 공동대표인 이상복 세무사는 “소득 구간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율 80%’로 자료를 낸 건 종교계를 흠집내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작은 셋강이 살아야 바다가 산다”

현장서 꽃피운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

“사실 작은 교회를 개척해 사역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몇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재열 목사님과 동선교회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물질 지원을 받아서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에서 만난 우효철 목사는 오랜 기간 고티 말라 선교사로 활동하다 귀국해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는 올해로 6년째다. 하지만 성도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이 고령층인 상황이다. 우 목사는 여전히 힘겹고 외로운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다. 도움이 손길 이 절실했다.

이런 가운데 박재열 목사와 동선교회 성도들을 만난 후 우 목사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

음을 보였다.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었다면 찬양은 즐거움의 시간이었다. 특히 찬양 반주가 피아노나 오르간이 아닌 장구로 행해졌다. 일반적인지 않은 진행에 모든 성도들이 흥미로워하며 즐겁게 찬양을 불렀다. 예배와 찬양이 끝난 후 박 목사와 성도들은 단체사진을 찍었다. 이 때 옆에 있던 성도가 박 목사에게 말했다. “다음번에 꼭 다시 오세요.”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전동교회는 정연석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개척교회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전에 정 목사는 항상 교인들을 차에 태우고 교회로 데려온다. 앞선 사례처럼 정 목사도 오랜 기간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흥 불씨 지피자” 전국 초교과 목회자·사모 5543명 초대하다

사랑의교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대규모 행사 진행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부흥 불씨’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씨를 다시 지피자는 취지에서다. 전국에서 5000여명의 초교과 목회자 부부가 초대됐고, 사랑의교회 성도들은 이 가운데 2000여명을 집으로 초대해 숙박을 제공했다. 이틀간 이어지는 행사엔 국내외 명강사가 총출동했다.

팬데믹 이후 지역 교회 최대 행사 26일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가 열린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엔 전국 각지에서 사역하는 초교과 목회자 부부 5543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를 주제로 한 행사는 지역 교회가 단독 주최한 행사로는 최대 규모다.

이날 7000석 규모의 본당은 초청된 목회자 부부와 교인 등으로 가득찼다. 1000여명은 부속실에서 모니터로 행사에 참여했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복음성가 ‘창조의 아버지’를 합창하며 복음의 잔치에 동참했다. 찬양을 마친 뒤 박성규(부산 부전교회) 목사의 인도를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

며 교회의 회복을 간구했다.

이어 오정현 목사가 강단에 올라섰다. ‘부흥의 DNA를 가진 한국교회’를 주제로 설교한 오 목사는 “한국교회에는 기도의 자원을 비롯해 헌신과 순교, 주일 성수의 자본이 있는데 이를 회복해야 진정한 부흥을 꿈꿀 수 있다”면서 “안디옥교회가 보여준 부흥의 모델을 좇아 ‘21세기 안디옥교회의 부흥’을 재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 자리에 온 모든 목회자가 영적 대전환을 경험하길 소망한다”며 “K부흥의 능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출발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령의 능력과 주권, 공교회의 중요성, 세계선교의 절박성,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 가정의 가치와 믿음의 계승 등 7가지를 뿌리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며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대하는

목회를 꿈꾸자”고 힘주어 말했다.

마이클 리브스 영국 유니온신학교 총장은 ‘위기와 부흥’을 주제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기독교 복음주의 거장’으로 꼽히는 존 스토틀의 제자인 리브스 총장은 “팬데믹이라는 위기는 회복과 부흥의 배경이 됐다”면서 “진정한 부흥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기독교인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스트셀러 ‘소명’의 저자 오스 기니스 교수와 미국 목사백교회 설립자인 릭 워런 목사도 영상을 통해 회복의 길을 제시했다.



2022 교단 총회 결산, 이중직 목회 길 열렸지만...

여성안수 ‘머나먼 길’

막을 내린 올해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는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팬데믹 이후 엔데믹으로 향하는 출발선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은 전도와 기도도 부흥의 불씨를 다시 모으고자 노력했다. 주요 이슈를 다룬 총회는 ‘일보 전진’이라고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중직 목회’의 길은 열렸지만 국내 최대 교단의 여성사역자 안수 문제는 벽을 넘지 못했다. 전 세계 긴급 현안인 기후·환경 문제엔 실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음세대 복음화에도 중점을 모으기로 했다.

‘전도·기도’로 재부흥 드라이브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일제히 10주 동안 전도하고 ‘새생명 초청 블레신데이’로 섬김시다.” 양대 장로교단인 예장합동의 권순용 총회장이 취임사에서 내세운 공약이다. 권 총회장은 “R B 카이퍼 박사는 ‘교회는 전도의 분부’라고 했다”면서 “총회와 노회, 교회가 전도분부가 되어 내년 1월 각 노회와 교회에서 전도 일꾼 대부분 수련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순창 예장통합 총회장도 취임 일성으로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새로운 전도의 열정으로 새 시대를 여는 걸음을 시작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도운동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종현 예장백석 총회장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다”면서 “우선 기도성령 운동으로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내년 사순절 기간 전국을 순회하는 ‘사순절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연홍 기장 총회장은 “기도회 장소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직 목회·여성안수 ‘희비’ 예장합동은 교단별상 ‘여성안수 불허’를 재확인했다. 대신 유급 교역자인 ‘준목(강도사)’ 호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기로 했다. 예장고신의 경우, 여성 안수 발의안 자체가 기각돼 관련 내용을 연구할 장구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이중직 목회의 경우, 예장통합은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경우 노회 허락을 받은 후 ‘자비

량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스스로 일을 해 마련한 돈으로 목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세대·기후 이슈 주목 다음세대 복음화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예장백석은 교단 최초로 ‘학원복음화 선교사’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교회와 함께 청소년 및 교사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신앙을 지도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

로 보인다. 예장고신은 ‘다음세대 훈련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가장 총회 유지재단은 교단 소유의 서울 서대문 선교회관을 보존하되 주변을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기후환경 이슈와 관련, 예장통합은 ‘기후위기 대응 지침’을 총회 정책 문서로 채택하고 탄소중립 교회로 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예장고신은 기후환경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가장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채택하고 ‘기후정의교육’ 등을 펼치기로 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피종진 목사 10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역 연구원 동문회 사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2(주) 저녁 원주 가곡교회 (이종찬 목사) 010-9731-7077
3(월) 저녁 군산 엘기드원 (원장 송영선 목사) 주최 global 부흥사회 (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4(화) 오후 충북 괴산 에바다기드원 (원장 이준수 목사) 주최 뉴헤이마부흥사회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제 226차 해외성회 (226th Overseas Assembly)
5(수) 미국 (USA) LA 세계기독교여매미기도회 (대표회장 이선자 목사) (714) 220-7660
6(목) 미국 (USA) 미주서부지역 (Pray for all Nation (세기) 미주서부지역총회 김경구 목사 (310) 404-6219
7(금) 미국 (USA) 미주 예배교회 (심진구 목사) (213) 590-9191
8(토) 미국 (USA) LA
9(주)~ 9,11 미국 (USA) 오렌지 한인교회 (피세원 목사) (949) 636-1558
10(월) 저녁 미국 (USA) LA OC 남가주기도대성회 (주최 세계기독교여매미기도회) 대표총회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선자 목사 ☎ (714) 220-7660
11(월) 미국 (USA) 남가주 Kanim World Prayer Center (원장 김은국 목사) (213) 249-2467
11(화) 미국 (USA) 남가주 Knapp Seymour University (총장 Tomas Vrumpold)
12(수) 미국 (USA) American West College & University (목회자 세미나) (이사장 홍용표 박사 행정총장 심진구 박사) (213) 590-9191
LA 출발 KE012 23:30 ~ 인천 도착 15 (토) 04:50
13(목) 서울 임마누엘교회 (전영호 목사) 010-7292-3377
16(주) 오전 제 5회 전국여성성도자컨퍼런스 장소 서울특별시 20층 주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5591-2325
17(월) 오전 이천 글로벌총회 (강은숙 목사) 010-3670-8999
서울 강남 반석기드원 (남보석 목사)
천안 Miracle International Mission Center (대표회장 김익수 목사) 010-9082-9030 아산 새별교회 (김수아 목사)
서울 영락교회 선교센터 주최 한미연합부흥강사단 대표총회 피종진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대전 주안장로교회 (전정순 목사) 010-7292-3377
KACAM 목사 안수식 (연희정 김승욱 목사) 장소 분당 헬렐루야 교회 (02) 3673-1323-5
제주 컨퍼런스 주최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 대표총회 피종진 목사 이사 김기성 R 010-5270-7105 장소: 제주 삼해인 관광호텔
27(목) 오전 연세대학교 연세동문 목회자의 날 장소: 연세동문회관 3층 천안 위대한학속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19)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열린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다시 생각하기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인 에덤 그랜트는 그의 책 싱크 어게인 (Think Again) 에서 지금도 여전히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를 쓰는 사람과 비교하면 1995년에 형성된 자신의 견해는 여전히 불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신봉하는 어떤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Grant 2021). 우리는 그랜트가 제안한 것처럼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가정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가 평소에 감기에 강한 우리 나라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나, 독감보다 덜 치명적일 것이라 생각하거나,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만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것이라는 것 등의 가정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모든 일상이 달라진 뉴노멀의 세상에 살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기가 절실한 시기가 되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매슈 사이드는 그의 책 다이버시티 파워에서 동질집단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미국 CIA가 911 테러 징후를 예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문제해결과 혁신을 가로막은 동질집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Syed 2021). 복잡한 문제일수록 다양한 다른 사고의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젠더, 인종, 나이, 종교 등을 넘어 관점과 통찰력, 경험, 사고방식 등의 차이를 두루 아우르는 집단지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가 극심한 선교의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도전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다.

열린 플랫폼에 모이는 사람

분야의 대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전문가들이 많이 개발되어 선교적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없었을까 질문하여 볼 필요가 있다. 100여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주재 한인 선교사들 가운데 누구도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러시아의

발한 논의는 선교의 방법에 대한 것이다. 모든 활동이 제약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선교 방법이 가능했는가 돌아보고 가장 효과적이기보다는 가장 가능성이 있었던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과 IT 발달은 4차산업혁명을 선교의 모든 분야에서 실감나게 하였다. 아프리카 케냐에 남아있던 선교사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답답한 감금(?) 생활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좁을 통로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심방하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오히려 몇 달에 한 번 갈 수 있었던 지역을 거의 매주 모임을 가지도록 가까워졌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많은 고급 자원들이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섬길 수 있는 길도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전문가 소견을 나누며 선교 현장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을 진료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현지인들의 진료를 도왔다. 평소 교회 가까이 유입된 난민들을 돌린 시라쿠스한인교회는

적인 단절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많은 경우 현지 선교 상황은 선교사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현지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지도력의 이양 시기는 언제가 좋을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 볼 영역이다.

선교의 대상과 자원 배분에 대한 논의이다. 선교사원의 90% 이상이 이미 복음을 들은 기독교인들(M0), 기독교인들과 같이 살거나 (M1), 근접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M2)을 위해 사용된다는 보고는 오랜 동안 랍포 윈터를 통하여 도전되었고, 그후 10/40 창 아이디어를 통해 루이스 부시를 통하여 들어왔다. 아직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 팬데믹으로 인하여 외국인들의 거주와 이동에 대해 극히 민감한 각 국가들, 특히 선교사가 가장 필요한 나라들은 선교사의 이동과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 남아있는 지역의 사람들, 선교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

버마종족 가운데 준비된 기독교인이 있다면 좋을 것이지만 미얀마에는 그렇게 준비된 기독교인 버마종족은 많이 없다. 그래서 다음 가능성은 친족, 까친족, 캄렌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준비된 사역자들이 많은 종족이 친족이었다. 그래서 친족의 사역자를 준비시켜 빨라 움직이도록 파송하고 그들이 다양한 방법의 섬김을 통해 현재는 소수의 교회들과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실례는 1996년부터 진행되어온 것으로 팬데믹 이전부터 지난 26년 동안 진행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현재 기독교인들이 된 빨라움들의 현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 가운데 위에 언급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견이 첨가되었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고 획기적인 복음의 침투가 가능하였을까 생각하면 어렵지만 하다. 선교사들이 직접적 접근이 어려운 지역일 수록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린 플랫폼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선교의 주 대상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소명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교회 전체적으로 선교의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을 향해 복음의 빈곤에 대한 논의, 전쟁이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물질 자원의 배분의 문제, 교만으로 가득한 불가지론자들이 타종교에 심취한 전통종교인들이 우선 대상인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사람들이나,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의 모습이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오늘날에 더욱,

dr.yongcho@gmail.com

한계를 뛰어넘는 선교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막힘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대화의 장 필요

들은 다양해야 한다. 선교의 전문가 뿐 아니라, 신학자, 목회자, 심리학자, IT 전문가, 미디어 전문가, 경제인, 경제학자, 안보전문가, 군인, 국제정치학자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재정적인 후원과 기도후원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급변 사태가 일어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IT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적인 발전이 가져다 줄 편리함을 어떻게 선교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찾아내고, 보안 문제 등과 같이 발전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IT

이런 대규모 침략이 있을 것이라 예측이나, 대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발하거나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선교사들이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정보나 큰 그림의 한계가 명확하고 그 어떤 전문가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런 국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비상사태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선교전문가들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막힘 없는 소통을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선교에 있어서 무엇을 다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할

최근에 온라인 한글학교, 미술학교, 음악학교를 개설하고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간대의 중남미 지역의 선교사 자녀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IT의 발전이 가져온 선교 영역의 확장이라고 할 것이다.

선교지 지도력 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고 비자발적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때에 나타난 현상은 현지인들에게 비자발적이지만 지도력을 이양하게 되었다. 즉, 현지 지도력이 개발이 된 선교사와 선교지는 사역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졌지만, 현지 지도력이 세워지지 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잠시 중단되는 것인지 영구

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유사문화권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얀마에 빨라움족이 있다. 금으로 장식을 하는 금빨라움족과 은으로 주로 장식을 하는 은빨라움족이 있는데 금빨라움족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한 것을 들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선교사가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단 두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금빨라움족 가운데 다른 도시로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다른 종족 기독교인을 통하여 소통하는 길이다. 다른 종족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강태광 목사 (월드케어USA대표)

37. 바울이 걸었던 에그나티아 고속도로

사도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며 로마의 도로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로마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자랑합니다. 로마는 도로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로마는 촘촘한 도로망으로 지방과 정복지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제국은 새로운 땅을 정복하면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성기에는 113개주에 연결된 372개의 고속도로가 400,000Km(250,000 Mi)이었습니. 잘 발달된 로마의 도로망은 로마 제국의 젖줄이었습니다. 이런 고속도로들은 군인들이 건설하였고, 각 지방정부가 도로 관리와 유지를 책임졌습니다. 로마는 도로의 건설, 유지, 활용에 선진국이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망은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도로망의 가장 중요한 활용은 군사용이었

습니다. 전시에 로마군은 도로망을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역상들이 로마의 도로망을 잘 활용하여 로마 시민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종교적 활용입

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로마 도로망을 통한 기독교 선교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로마의 고속도로 중 가장 먼저 건설된 것은 아피아 가

도였는데 아피아 고속도로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Via Appia)는 당시 일반도로에 없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피아 고속도로 이후에 건설된 로마 도로들은 공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속도로의 제국 로마의 고속도로들의 특징입니다.

첫째, 포장도로였습니다. 고대 도로는 비가 오면 도로가 진흙탕이 되어 기병들의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무, 자갈 혹은 포석으로 포장했습니다. 두꺼운 포석으로 포장하여 아직도 로마시대 포장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둘째로 인도와 차도의 분리입니다. 일방인과 수송 병력이 뒤섞이지 않도록 너비 1M 이상의 인도가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셋

과학적이었습니다.

로마 도로는 로마의 확장과 풍요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패망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도로 건설과 유지의 부담으로 야기된 내부 갈등과 부조리가 로마 쇠락을 재촉했습니다. 초기 로마 도로는 로마군의 진군을 도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발달된 도로로 적군의 침투가 빠르게 이뤄져 로마는 중요한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바울의 세계 선교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외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어인 헬라어 활용, 속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로마의 문화정책 그리고 발달된 로마의 도로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여건(Infra)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되었고 길이가 무려 696마일(1,120km)입니다.

로마에서 비잔티움까지 연결된 이 도로는 시설이 탁월했던 로마의 대표적인 고속도로입니다. 우선 도로 폭이 6m에서 9m로 광장한 규모였습니다. 특히 중앙 분리대가 있었고 상대방 채찍에 맞지 않기 위해서 좌측통행을 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도로에서 이정표(Milestone)가 등장했습니다. 로마는 거리(Miles)를 측정해 거리 표지석(Milestone)을 세워 지나온 거리와 가야 할 길의 거리도 알게 했습니다.

당시 마차를 탄 사람들은 하루에 50마일(80Km)을 이동한 후에는 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0마일 지점마다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들(여관, 식당, 목공실, 대장간, 우마를 위한 동물병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행자를 위한 종합 휴게시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여행시설입니다.

바울은 이 에그나티아 고속도로를 따라 2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바울이 방문한 도시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등입니다. 이 도시들은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을 선교한 것은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주요 도로 선상에 있는 거점 도시를 거점 교회를 세워 효과적인 선교를 도모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로마 도로망의 활용은 복음의 확산 기여, 효과적인 선교 도모

니다. 각 지역의 수호신이나 도시의 신들을 경배하기 위한 성지 순례의 여정에 로마 제국의 도로망이 활용되었습니다. 넷째 로마는 도로망을 이용해 우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편제도의 도입은 획기적이었습니다. 다섯째는 기독교 선교에 활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로마의 도로망을 활용했습니다. 로마 도로망은 복음의 확

도(Via Appia)입니다. 기원전 312년 로마 집정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쿠스가 건설한 도로입니다. 집정관의 이름을 따서 아피아 가도(Via Appia)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피아 고속도로는 당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도로입니다.

아피아 고속도로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시대와 로마시대에 많은 도로들이 건설

됐다. 배수입니다. 배수가 잘 되도록 도로 중앙이 볼록하게 건설하였고, 도로변 배수시설도 건설했습니다. 넷째는 직선 도로입니다. 다리를 놓고 산을 깎아 될 수 있는 대로 직선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다섯째, 정리된 가로수입니다. 지하로 뻗은 수목의 뿌리가 도로를 파괴하거나 가로수가 마차를 방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요컨대 로마의 도로는 대단히

선교 전략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에그나티아(Via Egnatia) 고속도로를 통해 2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기원전 145년 마케도니아 총독으로 부임한 에그나티우스(Egnatius)의 명령으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은 에그나티우스 총독의 이름을 따라 '에그나티아'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약 25년 동안에 건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어린양의 노래 (계 15:1-3) 찬 331장

계시록은 반복되는 상징들을 사용하나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교회가 서야만 할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로 이끕니다. 첫째, 누가 그 노래를 부릅니까? (2) 환난에서 승리한 자가 부릅니다. 2절에 짐승과 그 수를 이긴 자들이 이 땅에서의 적 그리스도와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 곧, 택한 자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 무엇을 노래합니까? (3) 구속의 한 그림인 모세 사역의 완성자,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했습니다. 어린양의 노래는 계시록 5:12절에 나오는 칠중 찬송의 완전히 깨달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셋째, 무엇으로 노래합니까? (2)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노래한다고 합니다. 구속을 완전히 경험한 감격을 악기에 담아 흘러내듯이 그들의 모든 활동이 새노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배소서 1:3의 바울처럼 이 땅에서부터 새노래를 부르는 감동으로 살아갑시다.

스도의 구속을 노래했습니다. 어린양의 노래는 계시록 5:12절에 나오는 칠중 찬송의 완전히 깨달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셋째, 무엇으로 노래합니까? (2)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노래한다고 합니다. 구속을 완전히 경험한 감격을 악기에 담아 흘러내듯이 그들의 모든 활동이 새노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배소서 1:3의 바울처럼 이 땅에서부터 새노래를 부르는 감동으로 살아갑시다.

화 새노래의 주제 (계 15:3) 찬 410장

첫째, 주재자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주 하나님"이란 절대 주권자를 말합니다. 창조이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이심을 깨닫고 큰 감격으로 그에게만 송영을 돌리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오직 주 하나님께 대한 송영으로 마치고도 되어있습니다. (바빙크) 둘째, 전능자이십니다. 일이 크고 놀라우신 주재자는 전능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나온 능력(두나미스)은 온 피조물, 신비로운 육계와 영계를 총망라하여 친히

일하시는 그분의 손이십니다. 그의 손의 만점을 받지 않은 것이란 역사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계 5:12) 셋째, 의의 왕이십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심은 적은 불의조차 전혀 포함되지 않는 완전한 지혜로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의롭고 참된 방법으로 성취된 구속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이 예고는 우리에게 산소망이며 참 능력입니다. 그 복된 반열에 들어선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 새노래의 반응 (계 15:4) 찬 95장

첫째,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의 위엄에 접한 어린양의 신부들이 참된 왕을 접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본문은 "누구든지 두려워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거룩의 원천이 오직 주님뿐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거룩해 됩니다. 구속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작품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셋째, 만국이 와서 경배합니다. 완성된 구속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에게 만국이 찾아와 그를 경배하게 합니다. 이것은 구속의 완성은 온 세상의 성전화였기 때문입니다. (계 21:22-26) 물론, 이것은 택함받은 자로 제한된 이 신비로움은 그 날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목 일곱 재앙의 예고 (계 15:5-8) 찬 427장

마지막 재앙은 어떻게 예고되었습니까? 첫째, 하늘의 장막이 열립니다. (5)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구약의 법계 안의 시노와를 생각해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으로,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실체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 문을 여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둘째, 그 전에 일곱 천사가 나와 일곱 대접을 직접 받아 심판대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6-7) 어린양에게 보내심 받은 일곱영(성령)은 일곱 천사의 심판 사역에 직접 간섭하십니다(계 5:6).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인자를 닮은 것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 가슴의 금띠를 가진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불택자가 받을 재앙이라 하여 대충하지 않고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입니다. 그 손 안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전혀 없습니다. 셋째, 영광이 가득 찬 성전에 심판이 완결되까지 능히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8) 이 심판을 마친 후에 구속이 완성됨으로 택한 자는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의 자리에 섭니다. 그러므로 이 예고는 우리에게 산소망이며 참 능력입니다. 그 복된 반열에 들어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 진노의 일곱 대접 (계 16:1-2) 찬 364장

첫째,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1) 여기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의 창세 전, 예후와의 회의의 결정(렘 23:18)이 그대로 된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속은 그 심판의 의가 완성된 후 일어났을 당연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렘 1:6) 둘째, 첫째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2) 온갖 감언이설로 천하를 꾀던 마귀가 만든 적 그리스도의 궤계에 넘어선 그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

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한 자는 마침내 마귀의 종이 되어 그렇게 처참해집니다. 셋째,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입니다. (2)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다 받으면서 피조물을 창조주로 바꾸어 섬기는 배은망덕의 죄가 얼마나 저주스러운가를 이 땅에서부터 피부로 지옥불을 느끼도록 하시는 두려우신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토 둘째 대접재앙 (계 16:3) 찬 495장

첫째, 바다에 쏟는 단호한 행동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수단인지 모르나 악을 심판하는 것으로 생물이나 자연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종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보이는 자연의 은총을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신처럼 의지하던 그들은 이 재앙의 큰 고통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죽은 자의 피갈이 되는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홍해에 일어난 재앙을 생각해 하는 그 현상은 두려운 천벌에 속합니다. 셋째,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상징이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활동의 먹이사슬을 파괴하니 그 결과는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상 기후로 일어나는 생태계의 파괴는 이것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교회음악 이야기(21)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매튜 브리지스의 면류관 가지고

초기 기독교 1-3세기 동안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대표적인 이단은 로마 황제들에 의한 황제숭배 사상과 영지주의(Gnosticism)입니다. 특히 영지주의는 단단한 이론을 내세워 지식인들 사이에 깊은 뿌리를 내려 교회를 크게 혼란스럽게 했던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헬라어 "그나시스(Gnosis)"에서 유래한 것으로 '안다'라는 의미로서 1세기 후반에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교회 사이에서 시작된 종교적 사상과 체계를 말합니다. 이 이론은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삼습니다. 첫째,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으로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며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런 죄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것은 실제 삶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란 이론입니다. 두번째는 더 높은 진리, 즉 뛰어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 지식은 높은 차원의 신비한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있는 높은 특권에 속해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삼위일체설을 부정하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당시 초기 기독교 교회를 대 혼란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스 목사님은 기독교 교회의 초기부터 풍부한 그리스와 라틴 찬송가를 발견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많은 찬송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 권의 찬송가인 Hymns of the Heart(1847)와 Passion of Jesus(1852)에 담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면류관 가지고"(crown Him with many crowns)는 1851년 Hymns of the Heart의 두 번째 판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곡의 오리지널 튠(Tune)은 DIADEMATA로서 이것은 그리스어로 '왕관'이란 뜻입니다. 이 튠을 가지고 영국 캔터베리(Canterbury) 태생의 조지 엘비(George Job Elvey, 1816-1893)경이 작곡하여 1868년 'Hymn Ancient and Modern'에 발표되어 모든 교파에서 회중 찬송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의 멜로디 후반부에 '내 혼아 깨어서...'를 시작으로 2도씩 상승하며 마치 총계를 올라가는 듯한 연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찬양의 찬양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작곡자의 의도로 보입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찬양 집회가 뜨거웠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필자도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하스데반 선교사께서 이끄는 목요찬양 집회에 다니곤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면 교회 뒷편에 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청년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담배, 라이터, 가요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선데이저널 소설 등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찬양을 드리며 예배자로 나아가겠다는 헌신과 다짐의 일종입니다.

위와 같은 1세기 초기 기독교 교회를 혼란한 상황 가운데 바른 찬양의 요소를 제시했던 요한계시록에 담긴 말씀(계 4:10-11)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를 소재로 해서 영국 성공회 목사 매튜 브리지스(Matthew Bridges, 1800-1894)는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가 '면류관 가지고'를 작사했던 것입니다. 찬송의 소재가 된 이 말씀은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놓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비드, 오늘날은 모든 분야에서 극도로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목사, 찬송작가 존 뉴턴(John Newton, 1725-1807)이 그의 생애 말기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 경험을 말해도 된다면, 나의 평안이요 생명인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는 일이 내 소명 중 단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앞이란 소중한 것입니다. 뉴턴 목사님은 모든 조건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브리지스 목사님은 영국 옥스포드 운동(Oxford Movement)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원래 사도 교회에서 성공회가 직계 혈통이라고 주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펼쳤던 운동이었습니다. 이를 추구하기 위해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고대 역사와 교리, 특히 전례를 연구하게 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 브리

폰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이 나는 오늘날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면류관을 내어 드림"입니다. 면류관을 드린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것이고, 내 삶의 주권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iyoon@wmu.edu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어부(영어부 동일)
▶ 1등상: \$500
▶ 2등상: \$300
▶ 3등상: \$150
▶ 장려상: 0명 - 상품
▶ 회원소성과 최고령상: 상품 및 상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미정(추후 발표)
-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 NIV, KJV(or NKJV) 중 택일
-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의사** 주관 : 하늘가족

광고후원 :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이사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 뉴저지평화기독교원 (김중철 원장), 뉴저지연하수 (대표: 김 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GOD IS LOVE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60.성경적 결혼의 조건

결혼정보회사 가연과 모바일 리서치전문회사 오픈서베이...

올라가 보아야지 하며, 2층에 가니,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잘 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결혼조건을 ABCDEF 순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A:Age(나이), B:Beauty(미모), C:Character(성격), D:Degree(학벌, 학위), E:Economy(경제력), F:Family(가정), 이런 것들을 결혼조건으로 중요시한다고 봅니다.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결혼조건은 '믿음(Faith)'

3순위에서는 남자의 대답이 엇갈렸습니다. 남성은 '외모', 여성은 '경제력·직업'에 각각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은? 상상조차 안돼! 아우~ 두 주먹에 힘을 쫓습니다. 두 여자는 서둘러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치(The Most Important Value)요 최우선권(First Priority)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결혼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 4:18)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따라 결혼의 조건을 선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결혼의 조건, 믿음(Faith)을 선택하므로 다른 좋은 결혼의 조건들(ABCEDEF)도 덩으로 받아 누리는 행복한 결혼이 되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완본(Wambon) 종족

▲ 인구 3,500 ~ 4,000명

▲ 종족의 종교 상황 기독교, 원시 자연 신앙

▲ 모델 되신 분에 대한 특이사항 네덜란드 개척교단의 선교를 힘입어 1980년대 초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배와 말씀은 인도네시아어로 전수되었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교육받은 주민들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시뎀 와툼(Asimop Warum), 완본 종족의 중심 마을인 망글룸(Manggalum)에 살던 이웃으로, 망글룸에 활주부가 개설

되었던 2005년경에 그 활주로를 관리하고 외지와의 통신을 위한 무선 라디오의 책임자로 성실하게 일했다. 지금은 공무원이 된 아들 아유브(Ayub)을 남기고 고인이 되었다.

▲ 기도제목

- 1. 완본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창세기과 신약전서가 완본 종족 사람들에게 잘 읽혀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와 축복이 가정과 사회 전반에 미치도록
2. 완본어 성경 번역에 헌진된 동역자로 섬기다가 지

금은 대부분 지역 교회의 사역자로 섬기는 이들이 성실히 교회와 주민들을 돕고 삶에 분이 되도록

3. 완본어 구약 성경과 주변 언어들로 계속 말씀을 전하려는 노력에 교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헌신하고 참여하도록

4. 지역 언어로 이미 번역된 말씀을 주민들이 애독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 터전이 가꾸어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NC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 멕시코 2 교도소에 담요 전달"

Jesus Mexico선교회(대표 최재민 선교사)는 멕시코의 많은 재활원들에서 기독교 영화 상영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 영화를 비롯하여 다른 기독교 영화들을 750회 이상 상영하고, 여러 교도소 사역과 캐리밴 사역도 병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Jesus Mexico는 교도소 사역의 일환으로 매년 겨울이 되면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담요를 전달하는 사역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 금번에도 Jesus Mexico 지난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옹고 II 교도소와 엔세나다 교도소에 담요를 전달했다. 본 담요 전달은 NC의 Greensboro한인장로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담요 후원금은 보내온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는 특히 올해는 담요 한일철 목사가 LA의 집회를 마치고 최재민 선교사와 함께 멕시코를 방문하여 교도소에 직접 담요를 전달했다.

엔세나다 교도소에는 담요뿐 아니라 여 재소자들을 위해 피자 35판도 준비해 별식도 제공

했으며 생필품인 화장지와 면도기, 비누, 치약과 칫솔 등도 전달했다.

멕시코의 각 교도소마다 수천 명씩의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으나 멕시코 정부에서는 담요는 물론 생필품도 공급을 못하는 상황임으로 Jesus Mexico는 매년 겨울철에 멕시코 여러 교도소들에 담요를 들여보내는 일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담요 사역은 1월까지 계속된다. 자세한 것은 최재민 선교사 (213-675-7575)에게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Jesus Mexico)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and 3 rows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 for churches like Galbraith, Danjok, Gongdome, etc.



인/터/뷰

유튜브 채널 "산나의 하나님 말씀" 호산나 전도사

아이들의 눈높이 맞춰 영성 있는 '말씀 영상' 제작에 올인

유튜브채널 "산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호산나 전도사를 만나 어린이 사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들어보았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신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대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암에 걸려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지난 2017년에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두 딸이 있는데, 제 친구 역시 4살, 6살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엄마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겠다고 친구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보스턴에 살고, 친구는 라스베이거스에 살고 있어서 직접 전해주기가 힘들어서 급하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지 못했지만, 친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모든 장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남편의 도움으로 첫 영상을 준비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사역을 통해 어떤 열매들이 있었나요?

2017년 말에 시작해서 사상 올리지 못한 주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매주 한편씩 영상을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에게 아무리 알려도 조회 수가 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시청자 수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많은 교회가 아직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한 영상들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 영상을 예배 가운데 많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특히 개척교회에서 어린이 부서를 만들거나 어린이 부서 사역자가 없는 교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예배 중 설교 영상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개척교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소통하며 사역을 지원해 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께서도 제

영상을 사용하셨다는 소식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알았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마다 마음에 가득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 유튜브 말씀 영상을 기획하시고 제작하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전도사 사역을 하기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일주일 생활해 왔고, 영상제작 과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준비과정을 보자면 월요일에 본

어린이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의 성경 한 권의 내용으로 한 바퀴 돌게 되었는데 최대한 모든 성경 인물들을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이들의 마음과 기억에

신경 써야 하지만 어린이 설교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고, 준비를 적게 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존중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이해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더욱더 아이들이 잘



호산나 전도사가 자신의 영상 소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이들의 마음과 기억에 잘 심어져서 성장기 가운데 말씀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잘 심어져서 성장기 가운데 말씀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어디든지 말씀이 필요한 곳에서 제작한 영상이 잘 쓰임 받아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과 어린이 사역 지망생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면?

저의 마음은 늘 어린이 설교와 어른설교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른 설교는 더 가치 있게 여겨서 더 오랫동안 준비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똑같은 한 영혼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내면을 보면 어른들과 별다른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속한 사회에서도 가족 안에서, 학교생활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중앙감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나를 왜 잘 이해 못 해줄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어른들이 좀 더 아이들을 잘 이해해 주면 좋을 텐데, 어른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왜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께 "어른이 돼도 아이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셨는데 당시 교회에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경공부 시간에 그림을 너무 예쁘게 준비해 오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빠져들며 집중하게 됐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아이들이 저건 정말 특별하고,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 말씀에 빠져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그러한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는 데 항상 최

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해 준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 설교 준비는 설교 영상의 경우 어린이들이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10분~15분 사이로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 한 가지 포인트를 잘 찾고, 그 한 포인트의 하나님 말씀이 어린이들의 마음에 잘 스며들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소망을 받으셨나요?

한동대 경영경제를 전공하였고, 전도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를 도와 드려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첫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느낀 것은 "이 일은 내가 평생 할 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로에 대해 더 깊이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기도 중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 하는 것이 없었고, 어떻게 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유치부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일은 평생 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사

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역에 관해 교회나 기관에서 요청하면 강연을 하기도 하며 어린이 사역을 위해 한걸음 걸어오고 있는 호산나 전도사. "영상제작을 위해 특별한 것을 배우지 않고 목소리도 하나님께 주신 목소리 그대로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준비할 때 개인적인 능력도 발전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얼굴에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hosssan12@gmail.com
(김재상 기자)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추천 도서



하나님을 말하다 림 켈러 두란노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임은 완벽하다 김성경, 토기장이
먹다 듣다 걷다 이어령 두란노
내 마음도 설곳이 필요해요 유은정 규장
한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